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국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 퇴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2023년 8월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China**

LI LEI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2023. 08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1. 연구의 내용	2
2. 연구의 방법	2
제3절 연구의 흐름도	3
제2장 이론적 배경	4
제1절 노인복지의 개념	4
1. 노인의 개념	4
2. 노인복지의 개념	5
3. 노인복지의 특성	6
제2절 중국과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	7
1. 중국의 노인복지 정책	7
2.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	1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1
1. 노인복지에 관련 선행연구	21
2. 노인복지에 관련 선행연구 요약표	24
제3장 연구의 설계	26
제1절 연구모형 설정	26
1. 연구모형 설정	26

2. 연구의 대상 및 표본 특성	30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측정항목	32
1. 연구의 방법	32
2. 측정항목의 구성	32
제4장 실증분석 결과	35
제 1절 기초통계 분석 결과	35
1. 기초통계 분석 결과	35
제 2절 T-test 분석 결과	41
1. 성별에 따른 T-test 검증결과	41
제 3절 Anova 분석 결과	45
1. 나이에 따른 Anova 검증결과	45
2. 학력에 따른 Anova 검증결과	52
제5장 결론	81
1. 연구결과의 요약	81
2. 연구의 발전방안	82
부록	84
참고문헌	9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3
<그림 3-1> 연구모형	26

표 목차

<표 2-1> 선행연구 요약표	24
<표 3-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1
<표 3-2> 측정항문표	33
<표 4-1> ‘노인복지제도’ 설문결과	36
<표 4-2> ‘경제적’ 설문결과	37
<표 4-3> ‘정책적’ 설문결과	38
<표 4-4> ‘사회적’ 설문결과	39
<표 4-5> ‘가족문화적’ 설문결과	40
<표 4-6> 성별에 따른 A항목의 t-검정결과표	41
<표 4-7> 성별에 따른 B항목의 t-검정결과표	42
<표 4-8> 성별에 따른 C항목의 t-검정결과표	42
<표 4-9> 성별에 따른 D항목의 t-검정결과표	43
<표 4-10> 성별에 따른 E항목의 t-검정결과표	44
<표 4-11> 나이에 따른 A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45
<표 4-12> 나이에 따른 A1 항목의 사후검정표	46
<표 4-13> 나이에 따른 A2 항목의 사후검정표	46
<표 4-14> 나이에 따른 A3 항목의 사후검정표	47
<표 4-15> 나이에 따른 B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48
<표 4-16> 나이에 따른 C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49
<표 4-17> 나이에 따른 D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49
<표 4-18> 나이에 따른 D6 항목의 사후검정표	50
<표 4-19> 나이에 따른 E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51

<표 4-20> 학력에 따른 A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52
<표 4-21> 학력에 따른 A1 항목의 사후검정표	52
<표 4-22> 학력에 따른 A2 항목의 사후검정표	54
<표 4-23> 학력에 따른 A3 항목의 사후검정표	55
<표 4-24> 학력에 따른 A4 항목의 사후검정표	57
<표 4-25> 학력에 따른 B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59
<표 4-26> 학력에 따른 B1 항목의 사후검정표	59
<표 4-27> 학력에 따른 B2 항목의 사후검정표	61
<표 4-28> 학력에 따른 C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63
<표 4-29> 학력에 따른 C2 항목의 사후검정표	63
<표 4-30> 학력에 따른 C4 항목의 사후검정표	65
<표 4-31> 학력에 따른 C5 항목의 사후검정표	66
<표 4-32> 학력에 따른 D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68
<표 4-33> 학력에 따른 D2 항목의 사후검정표	69
<표 4-34> 학력에 따른 D3 항목의 사후검정표	70
<표 4-35> 학력에 따른 D5 항목의 사후검정표	72
<표 4-36> 학력에 따른 D6 항목의 사후검정표	73
<표 4-37> 학력에 따른 E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75
<표 4-38> 학력에 따른 E3 항목의 사후검정표	75
<표 4-39> 학력에 따른 E4 항목의 사후검정표	77
<표 4-40> 학력에 따른 E5 항목의 사후검정표	78

국문초록

중국은 세계에서 노인 인구가 많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요양 서비스 시장의 전망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중국의 노인 인구는 2억 4,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노인 요양 서비스 시장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 과정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중국 사회는 가족 기능 약화, 노인 요양 서비스 지불 경로 부족, 의료 돌봄 수요 급증, 농촌 노인 요양 서비스의 공급 부족, 도시 노인 요양 서비스 구조의 불균형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인구 구조는 점점 더 노화되고 가족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도시화율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가구 구조가 점점 단순해지고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중국 노인의 사회 노후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노인복지 제도에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족문화적 요인을 토대로 노인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t-test와 Anova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성별기준에 따른 T-검정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중국 노인복지제도에 대해서 만족도와 인지도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항목에는 거의 성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보다는 중국 노인층이 경제적인 활동에 참가도에 대해 더 높은 수준으로 있었으며, 그리고 다른 항목에는 거의 성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정책적 요인에 대해서 중국의 노인문화교육정책, 노인의료정책, 노인요양상업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는 거의 성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에는 거의 성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문화적 요인에 남성이 여성보다는 경로문화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다른 항목에는 거의 성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나이기준에 따른 ANOVA 분석실시하였다. 중국 노인복지제도에 대해서 인지도 20대하고 50대가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양로보험정책에 대해 20대하고 50대, 40대하고 20대가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다른 항목에는 나이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다른 나이층에 보다는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정책적요인에 대해서 다른 항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 측면에서는 사회활동이 나이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층에 따라 30대하고 50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에는 거의 나이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가족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다른 나이층에 보다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학력기준에 따른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 노인복지제도에 대해서 만족도에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지도가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로보험정책이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 기타하고 대학원 졸업,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는 학력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에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는 학력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정책적 요인에서 사회참여 정책에 대해서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권익보장 정책에 대해서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는 학력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에서 사회활동에 대해서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는 학력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가족문화적 요인에서 경로문화의 도움이에 대해서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대학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문화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대학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는 학력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주제어: 중국 노인복지정책, 고령화, 양로정책. t-test, Anova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의료, 위생 등의 부단한 발전과 개혁으로 노인의 전체 수명이 원래의 평균수준에서 크게 되었다. 이런 향상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의 경향도 점점 심각해지고 사회적으로 중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현상의 해결은 오늘날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정책도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17년 8월 고령화율이 가속화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26년에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리고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5.9%에 달해 3명 중 1명 이상이 고령자가 될 전망이다(이예진,2018).

통계청이 10월 2일 경로의 날을 맞아 29일 발표한 '2021년 노인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은 853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에 달한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의 7% 이상을 '고령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지만 한국은 2017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노인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까지 초고령사회(20.3%, 1051만1000명)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했다.(한겨레, 2021).

한국의 고령자의 고령화는 심각한 인력 부족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2007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7.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과 2050년에는 4.6명과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보인다(조석주 외, 2007).

2021년 말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 6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한다. 추산에 따르면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3억 명을 돌파하고 20% 이상을 차지하여 중등도 고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경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억 명을 돌파하고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 심각한 고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中国新闻网,2022).

실제로 중국과 한국은 이러한 고령화 문제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직면해 있으며, 노인들이 사회에 안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는 것이 노화현상을 해결하는 열쇠이며,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중시 또한 국가 발전에 대한 중시이다. 노인복지는 노인이라는 집단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한 지역의 발전 추세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양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심각화로 인해 사람들은 노인 문제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직면해야 합니다. 노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의 복지수준을 높이며, 노인의 의료자원 확대는 이러한 발전 동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복지의 연구 대상을 기본으로 하고, 노인 주변에서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문제성을 찾아내고, 중국과 한국 간의 정책이 다른 요인을 근간으로 비교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층에 효과적인 개선방안과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복지정책의 발전은 현재의 사회발전 추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하면 인간 전체에 대한 안정적 발전 이념이기도 하다.

고령 사업을 발전시키고 노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정부 주도, 사회참여, 국민행동 원칙을 견지하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효과적인 개발 조치와 제도적 조치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구 고령화가 인간 사회와 국가 발전의 위기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적극적인 고령화에 바탕으로 노령화 도전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노인 친화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노인의 건강·활력·생활 복지를 향상시키며, 고령화 과정에서 인간 사회는 더 좋게 되겠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예비연구를 통해 노인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다. 둘째, 노인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도출하기 위해 노인복지의 이론적 내용을 요약하고 노인복지의 주요 요인을 확인 및 검증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노인복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어떤 요인이 노인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한다. 넷째, 이렇게 도출된 요인과 변수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노인복지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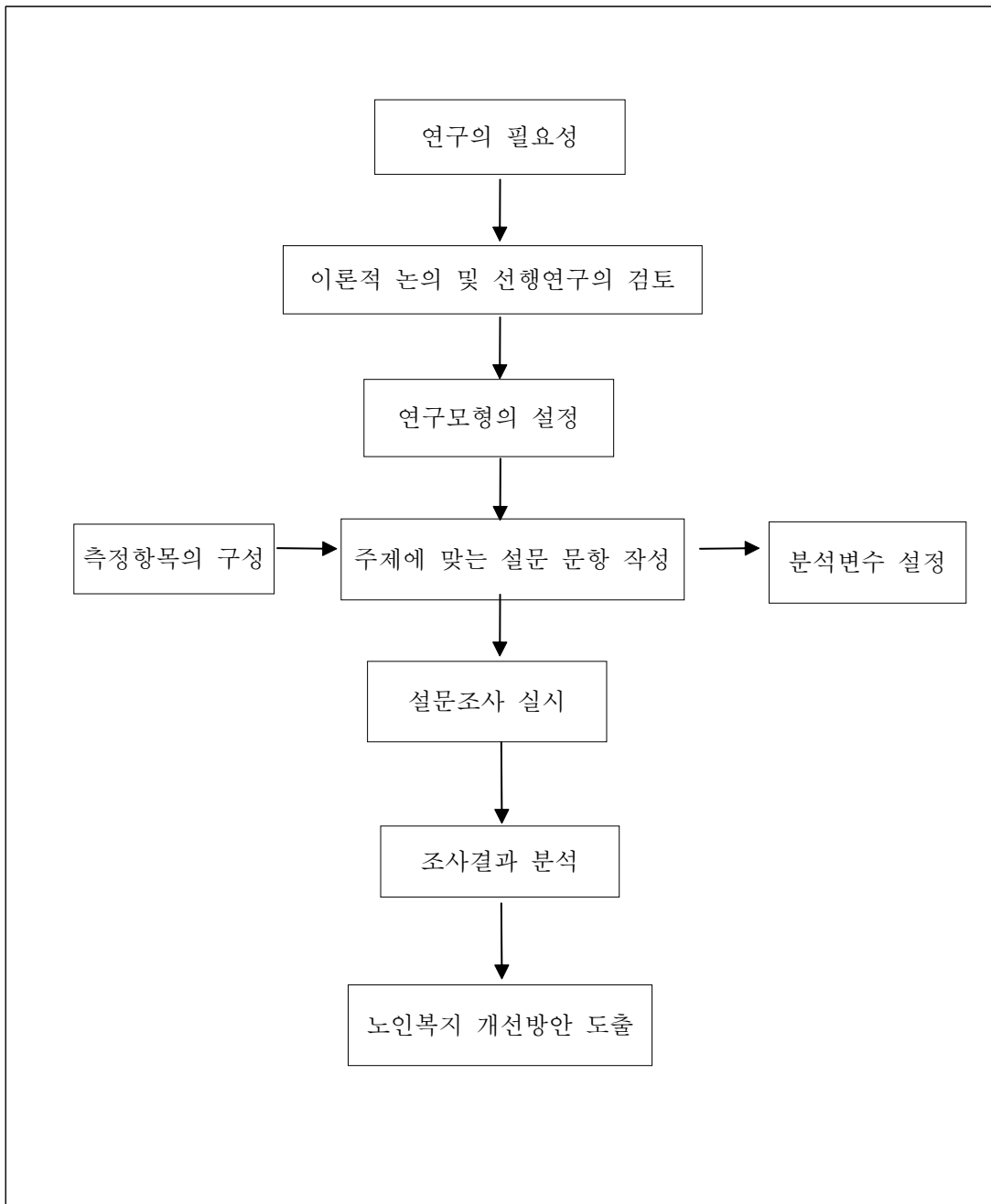
첫째,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한 이론적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문헌연구는 노인복지의 이론적 배경, 노인복지의 특징, 노인, 노인복지의 개념과 내용, 특징 등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선행연구 검토

를 통해 노인복지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다.

둘째, 실증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의 경우 만 19세 이상 중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T-test분석 및 ANOVA분석을 실시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흐름도

<그림 1-1>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노인복지의 개념

1. 노인의 개념

‘노인’이라는 용어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생명의 주기는 점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장년과 노년의 경계선은 종종 매우 애매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조부모가 되면 노년에 접어든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퇴를 노년의 징표로 여긴다. 사실 세계보건기구(WHO)와 일부 서구 선진국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WHO는 66세로 규정했다.

고령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헌법에도 '국가는 노인·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34조 4항), '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4조 5항)고 명시해 노인복지정책 시행에 관한 국가의무를 규정하고 노인을 언급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다. 고령자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인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기초연금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고령자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령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노인을 정의하는 것이다(양봉석, 2020)

일반적으로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은 연령 역전, 사회적 역할, 노인 자체 및 노인의식으로 정의한다. 미국 사회 복지사 협회(1995)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55-64세를 연소 노인(young-old), 65-74세 노인(old), 75-84세 고령 노인(older old 또는 middle-old), 그리고 85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oldest-old)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역연령에 따른 노인의 정의는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의 연령은 고령자가 되기 위한 법적, 정책적 및 행정적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이 시기부터 고령자로 규정되고 있다(유시영, 2010).

전세계에서 노인을 정의하는 것은 통일된 표준을 채택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60세 또는 65세의 두 가지 연령 노드로 나뉜다. 이에 따라 어떤 지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도 두 가지가 다르다. 다른 면에는 국가별로 노인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기초인식에 따라 60대 이상을 노인군으로 통칭한다.

2.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란 노인을 특수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국가와 사회가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존경하는 좋은 덕목을 발휘하여 노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의 정신문화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와 제공 시설 및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복지는 양로보험의 지속과 향상으로 노인의 기본적인 물질적 삶의 요구를 보장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문제"가 해결하는 기초 위에서 노인의 정신문화적 삶의 요구를 더욱 충족시키고 노인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 노인이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곳, 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전체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존재하고 있다.

노인 복지 정책의 주체는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할과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국가의 책무로서 노인복지를 통해 노인의 삶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다. 「노인복지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자원, 단체, 인력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오희진, 2018).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중 연금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제외한 소득보조제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제외한 의료지원제도, 주거보장과 관련한 물적 지원 등이 개념에 포함된다(정영희, 2008).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인의 조직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이를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제도는 노인들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인의 조직체계이다(이혜원, 2001).

노인 사회복지란 국가나 사회가 법률과 정책의 범위 내에서 거주자 주택, 공중보건, 환경보호, 기초교육 분야에서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재정 지원과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제도다. 국가 및 사회단체가 설립한 다양한 복지 시설,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복지 사업으로 표현된다. 노인 사회복지란 노인의 물질적·정신적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사업, 시설 및 서비스의 총칭이다. 노인의 사회복지란 특수성이 있으며 그 향유 대상은 근로능력이 상실되고 병약한 노인으로서 그 내용은 노인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고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3. 노인복지의 특성

노인복지는 특수성이 있으며 그 대상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병약한 노인으로서 그 내용은 노인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고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서비스는 구호서비스(remedial service), 예방서비스(preventive service), 개발서비스(developmental service)라고 정의한다. 구호서비스란 개인, 가정 그리고 그룹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다시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이라고 한다. 예방적 서비스와 달리 개인 또는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기능이 방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능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다(Moberg, 1984).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정의는 목적에 따라 내용, 범위, 수혜자, 서비스 수준 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서비스가 주체, 대상, 목적,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 복지 서비스의 주체는 국가로 보인다(김재희, 2013).

노인복지의 구체적 분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1) 생존과 안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복지. 예를 들어 주거 복지, 생활 돌봄 복지, 의료 및 간호 복지가 있다.

2) 존경과 필요한 복지를 충족시키다. 예를 들어, 노인의 생활과 활동에 적합한 지원 시설 구축, 노인에게 적합한 대중문화, 스포츠 및 오락 활동을 수행하여 노인의 정신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방문, 관광 및 대중교통 이용 측면에서 노인을 우대하고 보살핀다.

(3) 발전에 필요한 복리후생 하다. 예를 들어, 국가는 노인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각종 노인학교를 잘 운영하여 노인들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국가는 노인들이 인문계층과 정신 계층 방면의 발전은 상응하는 조건을 창조한다.

제 2 절 중국과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

1. 중국의 노인복지 정책

(1). 양로보험(養老保險)제도

양로보험(또는 연금보험 제도)이란 어떠한 법률과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국가가 정한 근로의무 해제의 근로연령 한계에 도달하거나, 노령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근로 직장에서 퇴출된 후의 기본생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수립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양로보험은 노인의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며, 재분배 수단이나 저축을 통해 보험 기금을 조성하여 노인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양로보험은 노인에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제공하여 노인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하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양로 보험은 노인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인구의 상당 부분을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

중국의 양로보험은 4단계(또는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본 양로 보험이다, 두 번째 단계는 기업 보충 양로 보험, 세 번째 단계는 개인 저축 양로 보험, 네 번째 단계는 상업 양로 보험이다. 이러한 다단계 연금 보험 시스템에서 기본 연금 보험은 첫 번째이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 양로보험은 퇴직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은 강제성, 공제성,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강제성은 국가에서 입법하고 시행하며 기업과 개인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공제성은 연금보험 비용의 출처에 반영되며 일반적으로 국가, 기업 및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사용 및 지분을 통일하여 기업 근로자가 생활 보장을 받고 광범위한 사회적 상호 작용을 실현한다. 사회성은 연금보험의 영향이 크고, 많은 사람을 누르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 지출이 크다.

1. 양로보험의 특성 및 작용

1). 양로보험의 특성

중국의 양로보험 제도를 주로 아래 내용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는 법률과 관련된 관리를 통해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체, 개인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노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회보험 부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양로보험의 비용 출처는 일반적으로 국가, 국유 기업의 단위 및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광범위한 사회적 상호 지원을 실현한다. 셋째, 양로보험은 사회성이 가지고 있고 영향이 크며 많은 사람과 긴 시간을 누리

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다. 이에 따라서 현대화, 전문화, 사회화를 위한 통일된 계획 및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특별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2). 양로보험의 작용

양로보험은 노인의 생활보장을 지표로 하여 재분배 수단이나 저축을 통해 보험 기금을 조성하여 노인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다음과 같은 작용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노동력 재생산을 보장하다. 양로보험제도의 확립을 통해 노동자의 정상적인 세대교체, 노인의 고령화 및 퇴직, 신성장 노동력의 원활한 고용, 고용구조의 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사회의 안전과 안정에 이롭다. 양로보험은 노인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제공하여 노인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하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금 보험은 노인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인구의 상당 부분을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양로보험 가입은 노후의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 사고방식으로 볼 때 사람들이 더 안정되고 덜 경박해지면 사회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는 경제 방면의 발전을 촉진하다. 양로보험 범위가 넓고 참여자가 많으며, 그 운영 중 많은 기금의 양로 보험금을 모을 수 있어 자본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기금제를 시행하는 연금보험모델은 개인계좌의 자금축적을 수십 년으로 계산하여 연금보험기금의 규모를 더 크게 하고,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며, 대규모 자금의 운영과 활용을 통해 국가의 국민경제 거시적 통제에 도움이 된다.

2. 양로보험의 발전과정 및 개혁과정

중국의 양로보험 제도 역사가 연혁될 때 이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이하의 내용과 같다. 즉 1단계 1951년-1984년 설립 및 발전, 2단계 1985년-2000년 개혁과 탐구, 3단계 2001년-2010년 통합 및 보완이다.

1. 제1단계는 사회화된 양로 제도를 처음 세우다. 중국의 도시양로보험제도는 1950년대 초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의 공포로 시작되었다. 1948년 12월 동북행정위원회가 공포한 「동북공기업 전시임시보험조례」를 기초로 하여 개정되었다. 1951년 2월 23일 국무원 제73차 정무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를 통과시켰고, 51년 3월 1일부터 발효되어 중국의 기업 근로자의 양로보험제도의 확립을 알렸다. 이때의 피보험자 범위는 도시 기업 직원임을 유의하다(知乎, 2022).

1951년부터 '문화혁명' 전까지 중국은 양로보험제도를 초보적으로 수립하여 통일된 지급조건, 처우기준, 납부비율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보험금의 30%를 전국노동조합에 사회보험총기금으로 상납하도록 규정하여 각지와 각 기업에 대한 조제를 실시하여 사실상 전국통괄을 실시하였다. 1957년에 일찍이 전국적으로 노동보험 조례를 시행한 기업의 근로자가 1,600만 명에 달하고, 동시에 조례를 시행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기업과 집단 노동보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700만 명에 달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범위가 당시 국영·공사합영·사기업 근로자 총수의 94%에 달했다고 사료된다(知乎, 2022)

1952년 국제노동총회에서 채택된 '사회보험(최저기준)협약' 102호의 규정과 비교하면, 이 시기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확실히 출발점이 높고 발전이 상당히 빨랐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끝난 후 이러한 국면에서 1978년 6월 국무원은 "노약자 간부 안착에 관한 잠정방법"(기관사업장)과 "근로자의 정년·퇴직에 관한 잠정방법"(기업근로자)(즉, 유명한 국발[1978]104호 문서)을 공포하여 "문화혁명"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 현상과 과거 제도의 결합에 대하여 퇴직의 요건 및 처우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1949년 건국 이후 중국이 사회주의 제도를 택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51년 당시 국무원은 '노동보험조례'를 공포하여 국유기업 근로자 임금의 3%를 상납하도록 규정하고, 보험기금으로 전국노총과 지방노조가 관리·지배하여 근로자의 상해·질병 발생 시 구제에 사용하였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 원래 임금의 70%~80%, 심지어 퇴직금 100%를 노후 대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방위적인 복지혜택이다(이재광, 陈櫻花, 2009).

1986년 중국의 개혁개방과 기업개혁과 함께 국무원은 문서 77호를 공포했다. 이 문건에는 "1980년대 말 연금보험의 범위가 더 확대됐다. 비록 참가 인원이 여전히 철저하지는 않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보험 가입 대상에는 이전의 공기업 근로자 외에 이미 집단 기업 근로자, 합자 기업, 외자 기업 등이 포함된다(이재광, 陈櫻花, 2009).

2. 제2단계는 사회 총괄 제도를 재건하다. 1984년 중국 공산당의 제11기 3중전회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을 기치로 하여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도시에 중점을 두고 국영기업 중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수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11기 3중전회의 결정은 사실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서막을 열었다. 이런 배경에서 자율경영을 도모하고 손익을 스스로 책임지는 상품 생산자와 사업자

가 되는 기업은 더 이상 자기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연금제도를 용납할 수 없다. 그리하여 1985년부터[소수 지역에서는 1984년부터 청도, 쑤보 등] 각지에서 양로 보험 사회 총괄 제도를 재건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었다(知乎, 2022)

1991년 국무원이 '도시기업 근로자 연금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국발[1991]33호)을 공포하면서 연금보험은 일방적인 고용주 부담에서 점차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어 전국적으로 연금보험 사회총괄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속기업을 지방연금총괄에 참여시키는 것은 기업의 상납이 득세를 줄여준다. 산업통제가 승인된 11개 업종은 모두 전 업종 단위로 이익세를 중앙정부에 직접 납부한다. 이들 산업의 경제적 이익은 일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지방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자 구조가 젊고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적으며, 현재 소득 및 현금 지불 제도 하에서 낮은 연금 보험료율만 인출하면 기업이 남긴 이익은 비교적 높다. 통계에 따르면, 당시 업종 통괄을 지방 통괄로 바꾸면, 매년 약 50억 위안의 양로 보험 비용을 지방에 더 납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앙 정부에 납부하는 이윤 총액을 현저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는 지원할 동기가 있다(知乎, 2022).

한 10년간의 개혁을 거쳐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었다: 기초보험, 보충보험(기업연금), 개인저축성보험의 다단계 체계틀을 초보적으로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3대 기둥' 보장 이론과 부합하고 기업과 근로자 개인 공동납부, 국가재정지원 자금조달 정책을 시행하였다. 연간 수입과 지출 규모가 2000억 위안을 넘었고, 사회 총괄과 개인 계좌를 결합한 제도 모델을 수립하여 공정과 효율의 원칙을 더욱 충분히 구현하기 시작하였으며, 연금에 대한 정상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퇴직자들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知乎, 2022).

1998년 국유기업 개혁은 난제 단계에 들어섰다. 중앙은 난공불락인 퇴직근로자와 퇴직자의 생활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확보 지침'을 제시했고, 기초연금의 적기 전액 지급 확보에 연금사업의 목표를 집중했다.이 시기의 양로 보험 제도는 규범과 통일성을 향해 나아갔다.

중국의 양로보험제도 개혁의 해빙은 1991년 국무원이 발표한 문서 33호에 있다. 이 문건에는 연금을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시됐다.이 문건에서 "개인 납부율은 3%를 넘지 않도록 설정했고, 이후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높아졌다.그리고 이 문서에는 모든 유형의 기업 근로자를 보험에 가입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있다(이재광,陈櫻花. 2009).

1995년 국무원 문서 6호는 공식적으로 중국 양로보험의 서막을 열었고, 이 문서에는 두 가지 실행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안은 국가체개위가 개인연금계좌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안은 노동부가 내놓은 것이다. 물론 두 방안 모두 개인 계좌 부분과 사회 총괄 부분을 포함하지만 강조점이 분명히 다를 뿐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이때부터 가지각색, 수백 개의 양로 보험 모식을 나타나기 시작했다. 같은 양로보험 모델이지만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등 및 성의 모든 도시는 지역 연금 보험, 특히 연금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체 연금 보험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노력한다. 훗날 중국의 양로보험 제도가 뒤섞인 게 화근이었다(이재광, 陈櫻花. 2009).

3. 제3단계는 기본적으로 1997년에 설립된 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제도의 틀 내에서 세분화, 보완하는 것이다: 개인계좌 납부비율을 명확히 하고 점차 개인계좌를 만들고, 양로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새로운 농합, 도시주택보험의 전면적 적용완료, 사회보험법 공포, 기관, 사업체, 기업근로자 연금보험제도의 병행을 실현하고, 성급 총괄을 완비하여 점차 전국 총괄을 실현한다(知乎, 2022)

중국의 양로보험 제도의 개혁 역사가 연혁될 때 이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이하의 내용과 같다.

1. 제1단계는 시범과 보급이다. 제1단계는 1984년부터 계산해야 한다. 기업의 노동제도 개혁과 맞물려 국유기업의 퇴직비용 생활조정과 고정근로자 양로보험기금 조성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1986년 국무원은 '공기업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잠정규정'을 공포하고 노동제도 개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동계약제 노동자의 연금보험제도를 수립하였다.

2. 제2단계는 개혁의 심화이다. 제2단계는 1991년 국무원이 공포한 '기업근로자 연금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국무원 결정'으로 표시되며, 기업근로자 연금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비교적 원칙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3. 제3단계는 새로운 모델이 기본적으로 형성된다. 1997년 7월 국무원은 '통일된 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제도 구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사회총괄과 개인계좌를 결합한 기업근로자 양로보험 모델의 확립을 의미하며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3. 양로 보험의 종류

중국 양로보험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중국의 근로자 양로보험, 주민양로보험, 상업양로보험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양로 보험과 근로양로보험 모두

중국의 양로 보험제도의 일부인 반면 상업양로보험은 보험회사가 도입하고 개인이 은퇴 후 노후생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구매하는 보험상품이다.

첫번째는 근로자양로보험이자. 먼저 근로자 연금보험은 직장인이 내는 연금보험으로 5대 보험에 포함된다. 매달 우리 월급에서 8%를 떼고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앞으로 개인에게 지급), 13~16%는 회사에서 내주고 통합 계좌로 들어간다(현 퇴직자 지급).

또 일자리가 없는 사람도 유연하게 취업할 수 있는 신분으로 근로자의 노후를 보내되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양로보험은 매달 납부해야 하고 15년 동안 누적 납부해야 정년이 된 뒤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이 되고 근로자의 노후가 15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지만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납부기간을 채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知乎, 2023).

두번째는 주민양로보험이다. 그런 다음 주민들의 노후를 위해 집에서 노인들이 많이 내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여러 납부 등급으로 나뉘며 각 지역은 일반적으로 12개 이상의 등급으로 나뉘며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며 등급에 따라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재정 보조금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등급은 연간 수백 위안만 지불하면 되며 가장 높은 등급은 매년 수천 위안만 지불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주민양로보험도 15년 이상 누적 납입하면 60세에 절차를 밟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까지 15년 미만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15년까지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노후에 돈을 적게 내지만 연금도 적게 내고, 근로자들은 더 많이 내지만 나중에 더 많은 양로금을 받을 수 있다(知乎, 2023).

마지막으로 상업양로보험이다. 상업 양로 보험은 본질적으로 재정 관리 유형의 보험으로 대부분 연금 보험과 평생 생명 보험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보험이든, 우리는 구매하기 전에 이 상품의 구체적인 이익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로보험은 구매하기 전에 상품 인터페이스를 통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보험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계약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는 종신보험의 추가 금액은 제품의 현금 가치 표를 통해 볼 수 있으며, 매년 제품의 현금 가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나타낸다(知乎, 2023).

4. 중국의 도시양로보험제도와 농촌양로보험제도

도시양로보험과 농촌양로보험은 보험대상이 다르며, 우선 도시근로자양로보험의 경우 도시근로자양로보험의 경우 도시근로자양로보험의 경우 주로 농촌주민이다. 그리고 도시양로보험은 국가법규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고용주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개인을 포함하여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농촌의 경우

자발적 원칙을 강조하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농촌의 현 단계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정부가 안내하지만 명령을 강제하지는 않다.

1. 중국 도시 양로보험제도

1). 기본 원칙

첫째는 도시민의 실태에 따른 해결방안으로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지역 경제발전 및 각 방면의 수용능력에 상응하는 기준과 처우기준을 대응하고, 둘째는 개인 및(가정)과 정부가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하여 권리와 의무를 대응하며, 셋째는 정부 주도과 주민의 자발적 결합으로 도시민의 보편적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넷째는 중앙정부가 기본원칙과 주요 정책을 확정하고, 지방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여 도시민 양로보험 관리를 실시한다.

2). 도시 양로보험의 가입 범위

중국의 만 16세(재학생 제외) 이상, 근로자의 기초양로보험 가입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취업 도시 거주자는 호적지에서 도시 거주자 양로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3). 도시 양로보험의 기금조성

첫 번째는 개인 납부이다. 도시 양로보험에 가입한 도시 거주자는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준은 연간 100위안, 200위안, 300위안, 400위안, 500위안, 600위안, 700위안, 800위안, 900위안, 1,000위안, 1,500위안, 2,000위안의 12단계로 설정되며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납부 등급을 추가할 수 있다. 둘째는 정부 보조금이다. 정부는 처우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에게 도시 양로보험의 기초 보험을 전액 지급합니다. 이 중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기초연금 기준에 따라 중서부 지역에 전액, 동부지역에 50%를 지원한다. 세 번째는 기타 경제 조직, 사회 조직 및 개인이 피보험자의 납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4). 도시 양로보험의 발전변화.

기존의 양로보험 체제는 국가, 기업, 개인이 양로보험료 납부를 3자가 부담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지계정산, 약간의 절여, 일부분의 축적을 남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현금 수령 및 현금 지불의 재무 시스템 모델. 새로운 제도 모델중에서 양로보험의 제1단계에서는 기업이 납부하는 일부 양로 보험료는 총괄 계좌로 들어가고, 일부는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개인 납부금은 모두 개인 계좌로 들어간다. 개인계좌. 연금보험의 통합계좌는 현금수령과 현금지급으로

볼 수 있지만 개인계좌는 기금 적립 형식.

또한, 2차, 3차원에서 상업화된 운영을 채택하는 것은 기금으로 볼 수 있다. 적립 형태. 이런 부분적립의 연금제도는 형평의 원칙을 구현하면서 동시에 효율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노동자 보호와 노동자 전원의 적극성에 도달하다(陈谊娜,2012).

5).도시 양로보험의 주요효과

도시 양로보험 제도 구축의 관점에서 중국 정부는 연금 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선하였다. 주요 징후는 1993년에 "사회통괄과 개인계좌를 결합"하는 기초노후를 수립했다는 보험체계라고 것이다. 1997년 통일된 도시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제도, 2001년 도시 기본양로보험제도 개혁 시범사업을 완비하고 점차 개인계좌를 개설하였으며, 2005년에는 도시자영업자와 유연취업자의 보험납부정책을 통일하고, 기초보험개발 방법을 개혁하고, 보험납부에 대한 인센티브 억제체제를 구축하여 개인계좌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하였다(沈诗杰, 2012).

2. 농촌 양로보험제도

1). 기본원칙

지역 여건에 따라 사회 연금 보험을 개발하고 의무와 자발성을 결합한다. 다른 말하면, 중국의 국가 여건에 입각하여 각지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사회양로보험에 대한 각지의 농민의 수요와 납부능력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적절하게 농촌양로보험을 설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에 가서 일하는 농민은 반드시 유연하게 대해야 하며, 도시에 가서 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도시의 양로보험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중국의 발전단계에서는 다단계 노후보장을 구축하여 가족형 노후보장제도와 통합하고 향후 사회양로보험으로 노후문제를 해결하도록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2). 농촌 양로보험의 가입 범위

지역 호적을 가지고 있고 60세 이상의 농촌 주민과 도시에서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농촌 주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유연 취업자는 모두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당 등급을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농촌 양로보험의 기금조성

국가 신형 농촌 사회 연금 보험은 연간 지불 기준을 100위안, 200위안, 300위

안, 400위안, 500위안의 5단계로 나눈다. 일부 지역의 도시 및 농촌 주민 연금 보험은 원래 200위안, 400위안, 600위안, 900위안의 4가지 납부 등급에 불과했지만 국가 표준과 연계하고 경제적 소득이 낮은 피보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은 100위안의 최저 납부 등급을 추가하였다.

4). 농촌 양로보험의 발전변화

중국 농촌연금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78년 개혁개방을 전환점으로 60여년의 깊은 변화를 겪었고, 인민들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연금보험제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60여년 동안 정치제도는 중앙집권적 통일에서 민주적 개방으로, 경제제도는 초기 계획경제의 집단적 생산에서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으로 발전했다. 경제사회 발전은 사회개념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중국의 농촌 양로보험 개념의 변화도 경제사회 발전의 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대의 흔적을 반영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어떤 개념의 생성과 변화도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분리될 수 없으며, 어떤 시대의 개념도 깊은 시대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 관련 개념의 형성은 시대별 실천의 결과이다(李建华, 张效锋 2009).

5). 농촌양로보험의 중요함의

국민의 사회보장적 권리로 볼 때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존권을 가져야 한다. 오랫동안 농촌의 도시 지원은 농민들이 도시화와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동등한 국민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빈곤층은 여전히 농촌에 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주의 중국의 사회발전제도이자 정책의 기본적 측면이며 사회보장을 향유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다. 중국 사회 발전의 기본 제도로서 국가 정책의 기본 방면, 사회 보장권은 공민의 기본 권리이다(周卉, 2015).

5). 도농 양로보험의 공평성.

도시와 농촌 생활하는 단체의 경우 양로보험의 불공평은 도시와 농촌 수준의 발전을 차별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차별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새로운 도시화의 발전과 새로운 농촌의 발전은 모두 미래의 중국 사회 정책 시스템의 안정에 필수적이며 둘 사이의 모순을 줄이기 위해 사회가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국민의 사회보장적 권리로 볼 때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존권을 가져야 한다. 오랫동안 농촌의 도시 지원은 농민들이 도시화와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동등

한 국민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빈곤층은 여전히 농촌에 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주의 중국의 사회발전제도가 정책의 기본적 측면이며 사회보장을 향유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다. 중국 사회 발전의 기본 제도로서 국가 정책의 기본 방면, 사회 보장권은 공민의 기본 권리이다. 총괄 범위상 도시민은 성급 총괄을 실시한다. 농촌 지역의 대부분의 새로운 농업 보험 시범 지역은 현금 종합 계획을 구현하였다. 동시에 도시 거주자는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반면 농촌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등 차이와 불공평이 존재한다(周卉, 2015).

2.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한국의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노후에 일을 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장애나 사망에 대비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수급자가 노령이나 장애 또는 사망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국민의 평균수명과 고령화가 점차 길어짐에 따라 일반 시민의 소득보장과 은퇴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삶과 생계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요구된 것이다. 이 시대에 도입된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이라고 한다.(국민연금공단,2011).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법률에 정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위험 분산 장치이며 금전적 급여가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프로그램이다(Myers,1975).베버리지(1942)의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alInsuranceandAlieidService)라는 보고서에 의하면,특정의 실업,질병,사고,노령,사망,예외적 지출과 같은 위기상황(contingencies)에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여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이 사회보험이라고 하였다(국민연금공단,2011).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만 65세부터 10년(120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때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운용한다. 노령연금도 많지만 지금은 용어 자체가 노령연금으로 통합된 상태이다.

법정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취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1999년 노령대비연금개혁안이 통과 되고200 4년 법정연금보험의 추가적 재정기초 확충에고령자의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연금 연동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노령연금은 65 세 이상에게 지급되며, 실업자도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 실업보험에서 전액부담하게 된다. 이 제도의 특이사항은 노쇠한노인을 위한 보호기간신용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노인 에게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보호서비스 제공자에게 연금각출 금을 지불한 것으로간주함으로

써, 보호제공자에게 노인을 위한 봉사 및 소득에 도움을 준다. 이 서비스는 주로 여성에 의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소득증가에 이바지 하고 있다(김근홍, 2005).

근로자인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4.5%씩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법 개정 시 재정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2033년 이후는 65세까지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 출생연도별 수급가능연령이 되면 수급권이 발생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다르다. 출생연도가 1953~1956년일 경우는 수급가능연령이 61세, 출생연도가 1957~1960년일 경우 62세로 이처럼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1969년 생 이후로는 수급가능연령을 65세부터 수급권이 발생한다(김대환 외, 2011).

사회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강제가입이라는 점과 가입자 개개인을 차별하지 않고 보험료 납부실적에 따라 급여의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즉, 각 개개인이 직면하는 소득상실의 위험률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김선영, 2013).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점차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만 18세~60세 모든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인 신분을 갖고 있는 18~60세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국민연금 의무적용 가입대상이다.

각국의 연금제도에 적용되는 대상자의 범위는 조금씩 상이하다. 취업자 중에서도 피용자 위주로 대상을 삼는 경우에서부터 일정 주거요건만 충족하면 당연 가입되는 가장포괄적인 제도까지 다양하며, 대체로 연금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적용대상의 확대과정은 단순히 연금가입자의 수적 증가만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하는 가입자들을 포괄하기 위하여 흔히 제도내용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국민연금연구센터, 1997).

2.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체계 및 특징

한국은 연금체계가 풍부해서 연금제도에 따라 연금호칭이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고령, 장애, 사망 등 소득 중단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분

류한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급여 방식에 따라 미래연금 급여를 결정하고 관련 비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제도는 연금 지급 수준을 결정하기 전에 통상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한다(고춘란, 2008).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은 민간보험과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으며 기여금에 대한 일정한 선택이 가능하지 않다. 법에 따라 강제 가입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 납부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일체계운영방식으로 급여와 부담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분열을 방지하고 소득 계층 간 지역 간 상호원조를 통하여 사회의 연대성을 조성한다(이용하 외, 2013).

특히, 동일 세대 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 요소를 반영하였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의가입이나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제도와 같이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료 납부 기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연금수급권 확보가 용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성숙, 2013).

3. 국민연금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

한국의 국민연금의 재원조달 형태는 즉 적립방식(funded system) 그리고 부과방식(pay-as-you-go), 부분적립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일부 적립 방식은 주로 징수 방식이지만, 일부 적립식 자금이 유지되는 경우 일부 저축 방식은 펀드 운용 수익률을 통한 전액 회수 방식보다 기여도가 높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세대 간 분배 측면에서 더 공정해지고, 인구 및 경제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유지되는 적립금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출연료율 인상이 국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연기할 수 있고, 공적 연금 목적 이외의 공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이 점차 바닥나기 때문에 일부 적립 방식에서 전액 회수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권문일, 2001).

징수방식은 당해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며, 예비금 없이 해당 회계연도의 가입자에게 기부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다(국민연금연구원, 2008).

향후 연금 지급에 대비하여 제도 초기부터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기여금을 장기 간 적립하여 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해 원리금과 기여소득이 있는 수익자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국민연금연구원, 2008).

기금의 운영수익을 통해 완전부과방식에 비해 기여율을 다소 낮게 유지될 수 있으며, 세대 간 분배라는 관점에서 보다 공평할 수 있으며, 인구학적·경제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춘란, 2008).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의 보험료율은 3%에서 시작하여 1998년까지 9%로 인상되었다.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은 계속 상향 조정하여 2020년부터는 16.6%, 2025년 이후는 19.1%로 인상될 예정이다(김선영, 2013).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 추이 전망을 보면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가입자 대비 수급자가 급등하여 보험료 수입 대비 연금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추이대로라면 2060년에는 적립금도 고갈되고 수지 차가 약 390조 원 적자에 도달하면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으로서 매우 취약해질 전망으로 예상된다(차치훈, 2014).

5.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6년에 제정되어 만 18세부터 60세까지의 국내 근로자(외국인 포함)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규직(5인 이상 사업체) 4.5%, 기업 4.5%, 나머지 9%. "임금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일을 할 수 없거나 70세가 넘었을 때 연금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국가와 기업,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기부금의 절반을 직원과 사업주가 부담하면 정부가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임금은 임금의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나이가 들거나 환자가 되기 전에 죽고, 연금은 매우 적다. 1916년에, 최저 연령이 65세로 낮아졌다. 1912년부터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자영업자도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된다(고춘란, 2008).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질병이나 재해로 소득이 끊겼을 때의 대응, 고령의 은퇴나 본인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준비, 출생·사망·결혼 등 특별지출을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데, 그는 사회보장을 빈곤과 연계해 '빈곤과의 투쟁'이라고 부르며 "국민소득의 재분배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정소득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한다(조덕호·마승렬, 2007).

일반 조세 방식이 아닌 보험방식 채택으로 제도시행 당시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

는 사각지대가 너무 커 조세 방식의 기초연금 도입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논의가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전면적 개혁은 막대한 제도 전환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비용 대비효과가 명백히 높아야지만 제도 전환의 타당성이 획득되나 기초연금 도입 등 구조적 개혁방안의 효용성 및 실현 가능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면적 구조적 개혁으로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초래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 하에서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점진적 제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조기원,2007).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 중의 핵심은 행정부의 수반이 속한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일치하지 않는 ‘분점정부’현상이다. ‘분점정부’하에서 행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에서 완전히 실패될 수도 있고 혹은 연금개혁의 결과가 상당한 정도의 변형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정치권력구조의 변화가 향후 연금개혁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이 한국의 복지정책의 형태를 새롭게 특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연명,2009).

중국과 한국의 노인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중국은 인구 기반이 크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제도의 차이, 각종 양로 제도의 모순, 그리고 중국의 노인복지제도는 정부와 국가의 복지수당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기본 양로 보험·기본의료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출산보험 등 5대 보험으로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의 다양한 복지제도와 달리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국민 고용보험·국민 기초 생활 보장 등 4대 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공적연금 체계의 주체적인 부분인데, 18세 이상 전 국민을 포괄하고 있어 진정으로 국민적이고 사회적이다. 한국의 노인 사회경제적 보장의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 국민연금의 보장범위를 참고할 수 있다. 비록 중국의 노인보험 가입 인구가 한국의 연금에 비해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향후 중국의 노인복지제도 발전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한국은 연금 급부의 재분배 기능이 강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재분배 기능이 강하다. 기능적 보장체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주요 노동력이 노령·장애·사망 위험에 대비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노인 요양 시스템은 어느 정도 관찰될 수 있으며, 중국의 노인 복지 시스템의 발전 추세와 결합하면 매우 중요한 발전 의미가 있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노인복지에 관련 선행연구

김진·이서영·조문기(2022)는 노인복지 전문인력, 노인복지 교육과정, 실천중심 전공교육, 교육환경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노인복지교육과정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노인복지 관련 교육과정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위해 한국 및 일본의 관련 대상을 비교·분석하였다.

김경숙(2022)은 노인복지조례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노인복지조례, 소득 및 일자리, 돌봄, 건강,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를 주장했다. 연구대상 범위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의 조례로 지정하였으며, 이들 지자체의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내용분석기준을 소득 및 일자리, 돌봄, 건강,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등 노인복지의 4대 분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재란·조계표(2021)는 고령화, 노인인구,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소득보장정책, 재가노인복지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 정책의 시대 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소득보장 정책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 복지 정책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재봉·손경희(2020)는 노인빈곤에 통해 노인복지정책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변수로 인한 주택자산, 금융자산, 토지자산,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별, 연령, 결혼, 장애,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상북도 노인빈곤 실태를 파악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 빈곤 정책은 도시 지역, 여성, 부부 가구, 무종교 집단, 저학력 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원홍(2020)는 효행장려정책, 효행지원정책,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돌봄을 주장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효행 장려 및 지원 정책과 노인 복지 관련 정책 간의 관계가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에 제안된 효행장려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더해 해당 정책인 노인복지정책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Tang Yun(2019)는 중국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에 통해서 중국의 노령 인구 현황, 노인 복지 정책, 노인 복지 현황 및 특성을 주장했다. 현대 고령사회의 발전을 바탕으로 간호, 문화, 오락 등의 노인에 대한 수요도 증가 추세가 되었다. 노인의 복지 수요를 이해하고 복지 제도의 다양성을 개발하며 노인 복지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노인 복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권다운·백진영·최창용(2022)은 노령층의 정책참여, 독거노인 및 사회활동으로 부터 소외된 노인인구의 사회참여를 주장했다. 먼저 제도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회와 노인의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고령화사회에서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복현·황윤희(2020)는 사회복지정책 만족도, 사회서비스 이용, 복지인식을 주장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소득수준, 학력, 성별)에 따라 노인복지 인식이 사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인 복지인식과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을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함께 연구·분석하는 것이다.

김도희·조정현·장임숙(2018)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 정책적 지원을 주장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65세 이상 노인과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은 여가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의 확충과 경제활동 및 소득보장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임을 알 수 있다. 현행 노인복지정책 중 건강분야가 가장 높고 경제활동분야가 가장 낮은 만큼 경제활동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현정(2018)은 개혁기 중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고령 농민의 구조적 배제에 통해서 농촌이라는 지역적 생활환경, 개혁기 중국의 고령화 현황, 고령 농민의 실태를 주장했다. 본 논문은 특별한 '고령농민' 개념을 이용하여 중국 개혁기 고령화 현황, 고령농민의 실태, 중국의 노인복지정책을 개괄한 후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거버넌스 방안에서 오늘날의 고령농민복지정책의 의의를 이해한다.

이선희 정순돌(2022)은 예비노인(55세~64세)이 전기노인(65~74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삶의 질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삶의 질 변화궤적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비 노인의 종합적인 생활 변화와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생애사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삶의 다양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예방적 관점에서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소득보장제도 내실화 등 생활 주요 분야의 정책개선을 병행한다.

양승미(2022)는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 또는 독거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제도, 노인복지법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주장했다. 복지제도의 국가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복지국가여야 한다. 적어도 생존에 필요한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고령화 사회를 더욱 심화시키는 복지국가에 대한 방향이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재 살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희성 권순호 (2020)는 고령자와 노인의 정의를 명확히 구별하여 포괄적인 고령자보다는 퇴직한 고령자를 포함한 노인복지 정책을 위하여 선진국의 고령자와

노인복지제도를 고찰하여 중요한 제도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다는 주장했다.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우선순위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인구의 기본적 욕구와 예방적·보편적 측면을 충족시켜 전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 욕구 충족에 두어야 한다.

김수정 (2019)은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명기하고, 소득보장, 주거보장, 고용보장, 건강보장, 사회서비스 등 모든 세부 영역에서 인권관점을 기반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했다. 현재 건강모델이 지배하는 생애주기에 있는 노인을 주체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실천에서 인권적 관점에 기초한 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비해야 한다.

정현명 (2013)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방안도 검토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장했다. 먼저 노인복지 관련법을 발의한다. 개정 과정을 연구해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의 법체계 위상을 확립한 뒤 향후 노인건강, 노인일자리 창출, 주거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장을 받고, 한국 노인복지 문제의 근간이 되는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연구결론을 도출한다.

신현목 (2011)은 한국의 가족구성원과 노인들의 가족관계망을 분석하고 이것이 가족과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자는 주장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먼저 한국 노인의 사회적 특성을 고찰하고 가족 복지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참여 내용 및 형태를 살펴본다.

조철호 (2010)는 고령화의 진전은 사회보장, 복지, 의료는 물론 모든 사회 시스템에 대하여 변혁을 요구한다는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 노인복지주거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와 단계별 진료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시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먼저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에서 지역사회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거주자의 유형과 기능, 지원되는 정책을 초월적 모델로 연구하고, 시장원리를 적용한 운영체제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거주 노인 복지 시설 계획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박명숙 남영신 (2010)은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와 최근에는 더욱 노인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구촌 모든 국가가 직면한 노인문제의 해결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노년기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노인복지제도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특성 분석과 각각의 제도가 가진 특성을 단순 비교분석한다.

2. 노인복지에 관련 선행연구 요약표

<선행연구 요약표 2-1>

저자명	논문제목	구성요소
김진 이서영 조문기 (2022)	초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연구	노인복지 전문인력, 노인복지 교육 과정, 실천중심 전공교육, 교육환경 개선
김경숙 (2022)	광주·전남지역에서의 노인복지 조례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조례, 소득 및 일자리, 돌봄, 건강,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이재란 조계표 (2021)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령화, 노인인구,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소득보장정책, 재가노인복지제시
함재봉 손경희 (2020)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빈곤과 노인복지정책	노인빈곤, 노인복지정책
민원홍 (2020)	효행 장려 및 지원정책과 노인복지 관련 정책 간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효행장려정책, 효행지원정책,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돌봄
Tang Yun (2019)	중국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중국 청더시를 중심으로	중국의 노령 인구 현황, 노인 복지정책, 노인 복지 현황 및 특성
권다은 백진영 최창용 (2022)	사회통합(Social cohesion) 변수 기반 고령사회 노인인구의 심리적 건강과 복지정책 분석	노령층의 정책참여, 독거노인 및 사회활동으로부터 소외된 노인인구의 사회참여
서복현 황윤희 (2020)	노인의 복지인식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만족도, 사회서비스 이용, 복지인식
김도희 조정현 장임숙 (2018)	지역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 울산광역시 남구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 정책적 지원

이현정 (2018)	개혁기 중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고령 농민의 구조적 배제	농촌이라는 지역적 생활환경, 개혁 기 중국의 고령화 현황, 고령 농민의 실태
이선희 정순돌 (2022)	예비노인의 삶의 질 다중케적 연 구	예비노인, 삶의 질, 집단중심 다중케적 분석
양승미 (2022)	노인복지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독거노인, 노인복지제도, 노인복지 법제
이희성 권순호 (2020)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령자, 초고령사회, 노후준비 노인복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수정 (2019)	인권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노 인복지제도 변화	인권관점, 탄압 패러다임, 인권 패 러다임, 웰빙 패러다임, 노인복지제도 의 변화
정현명 (2013)	한국 노인복지법제의 현황과 과 제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 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제도.
신현목 (2011)	가족복지와 노인복지의 상호작용 에 있어서 역할 효능성에 관한 연 구	가족복지, 노인복지, 가족구성원, 노인부양.
조철호 (2010)	지역사회 노인주거시설에 관한 연 구	평균수명의 증가, 핵가족화, 출산율의 저하
박명숙 남영신 (2010)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노인복지,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고 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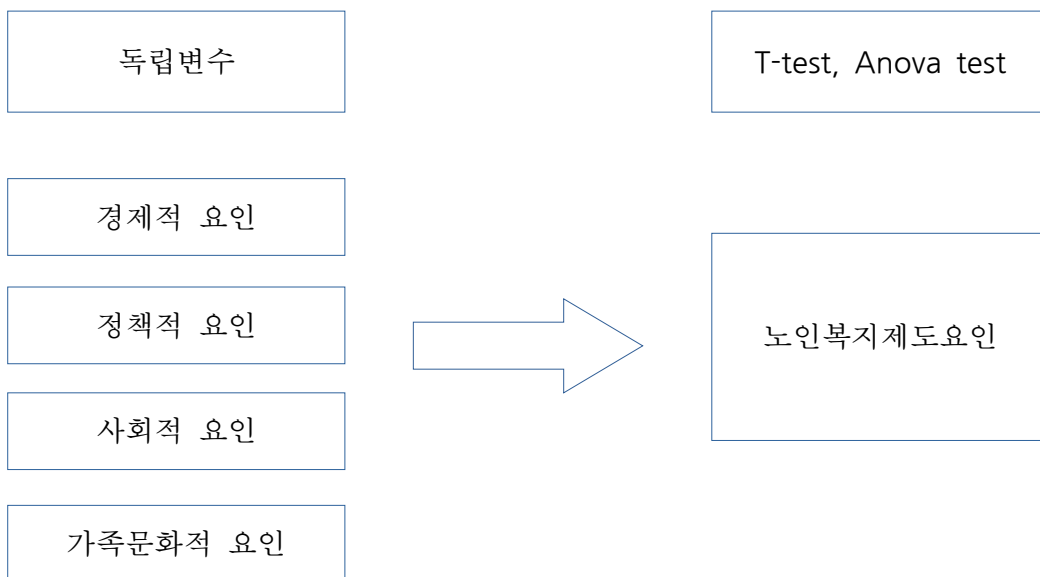
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절 연구모형 설정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중국 노인복지 제도에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족문화적 요인을 토대로 노인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t-test와 Anova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 그림 3-1>



2. 노인복지제도에 따라 미치는 영향요인

1. 노인복지제도

노인복지제도는 노인복지 관련 정책 관련 보험, 노인의 양로시설과 양로서비스 등에서 나타난다. 노인복지제도 향상은 국가 기업 개인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노인복지제도를 높이는 것은 노인층의 생활보장 노력만이 아니다. 노인복지제도도

사회 집단의 모든 인원에 대한 사회보장체계의 발전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보장을 가져오고 있다. 노인복지제도의 안정화는 사회의 안정적 발전도 담보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노인복지제도의 발전은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1). 경제적 요인

고령화 사회 배경에서 경제 발전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제도의 제약이 존재한다. 오늘날까지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기관은 더 이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리고 민간 노인복지에 관련한 기관은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일부 노인층들이 부담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노인복지제도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인구 고령화는 저축률을 낮추고 자본 공급을 줄이며 사회적 지원 부담을 늘리는 등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고령화 대책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아파트, 전문병원, 요양원, 가정의료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노인산업의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인구의 증가는 전근대 사회의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산업화의 진전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기침체에 직면하더라도 노인 인구의 막대한 비용이 지속적인 복지지출 부담으로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화 국가들은 현재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높은 복지와 높은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할당된 자원은 감소했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화 인구의 과잉은 결국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로 이어진다. 그 결과 고령자 인구 증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발전하다..(노석주,이상목,2018)

2). 정책적 요인

사실 중국에서 현대 노인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지원은 존재하고 있다. 이런저런 정책에 통해서 노인 요양에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중앙 정부는 정책을 관련 규제를 통해 인구 노후를 규칙화과 일원화하는 재정지출을 할 수 있다. 한편에 젊은 층들에게 노인 요양에 발전은 개인적으로 미래 노후 수요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회의 발전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는 노인복지제도의 통일성만 갖고 뿐만 아니라 관련한 발전 의미도 존재한다.

2007년 전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양로시설(사회복지원, 양로원, 노인주택, 요양원 등)은 3만 8,000개소(침대 수 138만 개), 도농 지역사회의 마을 경로원(그룹홈) 19만 5,000개소, 노인재가서비스 센터 8,47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사, 887개 현(縣)급 행정지역에 농촌사회의 공적 양로보험을 확대 실시하여 13,783만 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일반 농촌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5,442만 명에 이르고 있다(杜鹏·王武林 2007).

중국 전국의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13,783만 명이며, 2005년부터는 '농촌 5보 부양업무 조례'를 제정, 462.4만 명의 5보 대상자에게 혜택과 아울러 농촌경로원 32,572개소를 신규로 설립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농촌합작의료제도가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래, 전국의 2,448개 현(시, 구)에 기본적으로 신농촌합작의료제도를 수립하여, 농민 85.9%인 7.3억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07년 전국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도시 2,238만 명, 농촌 2,782만 명에 이르고 있다(閻青春, 2006).

그리고 노인대학(학교)은 1996년 8,300개소에서 2007년에는 3만 개소로 증가되었고 재학생 수가 70만에서 300여만 명으로 노인 100명당 2명이 각기 다른 형태의 노인교 육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상하이(上海) 노령대학에는 7개 학과, 27개 전공, 47개 강좌를 개설 2,000여 명의 노인들이 재학하고 있다(中国新闻网, 2007). 중국의 정책 발전은 노인복지제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다.

3). 사회적 요인

노인층의 경우 사회적 요인이 노인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층이 사회에서 일정한 인정과 지원을 얻으며 노인의 정신적 측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동시에 현대 사회에 대한 노인 인구의 요구를 강화하는 것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현대화된 노인복지정책은 시대 변화에 따라 노인층의 요구에 따라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뉴스의 보도에 통해서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독거 노인층은 사회적 방식으로 일정한 관심 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기초병이 있는 노인층은 사회조직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적 지원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적 지원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셜네트워크의 크기는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 형제자매 등 비관련 소셜네트워크와 친구, 이웃, 참여단체 등 다른 혈액형을 통해 측정된다.(Cantor, 1979).

노인의 경우에는 자녀가 배우자나 지인과 결혼·퇴직·배우자 사망 등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크게 감소한 것 자체가 노인들의 심리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박영란 외, 2014).

Berkman(1995)과 Seeman(1996)은 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적 지원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심근 경색과 같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분석을 수행했

다.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 요인과 개인의 평화 사이에서 완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건강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이라고 강조했다.(최은정, 1999).

4). 가족문화적 요인

가족적문화적 요인도 노인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가족은 노인이 생활하는 중요한 장소이며 노인과 가족의 관계는 주요 사회 네트워크이며 노인에 대한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의 존재와 상호 이해는 노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가정에서 자녀가 노인에게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것은 노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인 복지제도의 뿐만아니라 사회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다. 가족문화적 요소도 개인의식적 요소인데, 중국에서는 노후를 위해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고유의 의식이다. 특히 고대에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필수적 책임이며, 이후 자신의 노후에 대한 보장도 있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전반적인 노후 정책 수준의 발전에는 문화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인 노후 의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노후 서비스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가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제도였다. 가족은 한 개인이 태어나면부터 성장하는 동안 사회적,심리적,정서적으로 더 붙어 존재하는 일차적 집단으로 인간은 가족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런 맥락 에서 문화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는 “가족은 모든 제도 중 가장 끈질기고 강 력한 제도체로써 인간의 양육과 성장을 담당하는 제도”라고 지적 한바 있다 (Lesline,1979; 권대희,오윤자, 2004).

건강한 가정은 건강과 가정의 조합입니다.사전적 건강의 의미에서는 몸은 질병 없이 강하지만 WHO는 건강을 단순한 무병 상태가 아닌 신체적·정신적으로 행복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건강이란 불편감이나 무력감 없이 적절하게 진행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가족건강은 최근 가족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는 개념으로 건강한 사회 유지와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는 의미로 나타났다.(유영주,2004).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효의식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그렇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효에 입각한 가족 상호간의 애정과 배려,돌봄과 보답,격려와 지지 또한 인간에 대한 존경과 신뢰 등의 가치와 덕목이 있으며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이러한 핵심 가치들이 만약 평등주의, 상호적,도덕적 믿음에 근거하여,가족구성원과 사회적 구성원 관계에서 실천될 수 있다면,현대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정동하,2009).

Cowgil& Holmes의 현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에 의하면 “사회변화 과정에서 현대화란 불가피한 것이며 이러한 현대화는 노인의 지위를 하락” 시킨다는 것이다. 즉,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의 지위가 절대적이지만 사회가 현대화 되면 될수록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남현숙,2002).

2. 연구의 대상 및 표본 특성

본 연구의 실증자료는 20대부터 60대이상까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분석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완성 한 이후, 설문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2023년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의 5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설문문항을 수정하였다.

사전 설문지 신뢰도 및 타당도 검토를 끝낸 후, 본 설문은 2023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4일간의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방법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3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33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은 205명(61.9%), 여성은 126명(38.1%)으로 성별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50대라는 응답이 117명(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은 41명(12.4%)으로 가장 적었다. 응답자의 학력에 대한 설문결과에 보면 대학교 학력은 130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학력은 85명(25.7%), 가타 학력은 39명(11.8%), 중학교 학력은 36명(10.9%), 대학원 학력은 23명(6.9%), 초등학교 학력은 18명(5.4%)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의 경우 대부분이 결혼이었고 270명(81.6%), 미혼자 48명(14.5%)이 응답하였다. 가타의 경우 13명(3.9%) 가장 적었다. 응답자의 직업에 대한 설문결과에 보면 가타 직업을 134명(4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무직은 114명(34.4%), 자영업은 38명(11.5%), 무직은 34명(10.3%), 학생은 11명(3.3%)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31)

구분		명	%	구분		명	%
성별	남성	205	61.9%	직업	무직	34	10.3%
	여성	126	38.1%		자영업	38	11.5%
연령	20대	46	13.9%	사무직	114	34.4%	
	30대	56	16.9%		학생	11	3.3%
	40대	71	21.5%		기타	134	40.5%
	50대	117	35.3%	노인수	없음	51	15.4%
	60대이상	41	12.4%		1명	69	20.8%
	학력	초등학교 졸업	18		5.4%	2명	97
중학교 졸업		36	10.9%		3명	47	14.2%
고등학교 졸업		85	25.7%		4명 ~ 4명이상	54	16.3%
대학교 졸업		130	39.3%	기타	13	3.9%	
대학원 졸업		23	6.9%				
기타		39	11.8%				
결혼 상태	미혼	48	14.5%				
	결혼	270	81.6%				
	기타	13	3.9%				
자녀수	없음	13	5.6%				
	1명	135	48.0%				
	2명	103	36.7%				
	3명~3명이상	25	8.9%				
	기타	5	1.8%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측정항목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사회과학 기초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4.0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문문항의 기초통계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설문문항의 결과값을 통제변수인 ‘성별’, ‘나이’, ‘학력’에 따라 T-test와 Anova분석을 통해 인식 차이를 검증하였다.

2. 측정항목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항목은 선행연구 및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5가지 요인변수와 25개의 관측변수를 설정하였다. 이 모든 5가지 요인변수 중 노인복지제도요인 변수의 경우,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경제적 요인은 4개 문항, 정책적 요인은 5개 문항, 사회적 요인은 6개 문항, 가족문화적 요인은 5개 문항. 또한 본 설문은 사전 설문검토를 통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문항이다.

설문문항의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①전혀 아니다 ~ ⑤매우 그렇다’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측정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측정항문표 표 3-2>

변수	측정항목
노인복지제도 도 (5문항)	a1. 귀하는 중국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a2. 귀하께서는 중국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a3. 귀하는 양로보험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십니까?
	a4. 귀하는 현재 양로보험정책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5. 귀하는 현재 중국의 노인층 소득수준이 노후생활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요인 (4문항)	b1. 귀하는 현재 노인층의 양로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2. 노인층의 의료비를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3. 귀하는 노인층이 경제적인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4. 귀하는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적 요인 (5문항)	c1. 귀하께서는 노인문화교육정책으로 노인의 자질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2. 귀하께서는 노인의료정책을 통해 노인층의 평균 수명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3. 귀하께서는 노인서비스 정책을 통해 노인요양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c4. 귀하께서는 노인 사회참여정책이 노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5. 귀하께서는 노인 권익보장정책을 통해 노후생활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요인 (6문항)	d1. 귀하는 노인복지제도 발전을 위해 노인층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십니까?
	d2. 귀하는 중국의 노인복지 보장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d3. 귀하는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 수준의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d4. 귀하는 재택양로의 방식이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d5. 귀하께서는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d6. 귀하께서는 노인이 사회활동을 통해 노후생활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문화적 요인 (5문항)	e1. 귀하께서는 노인과 자녀가 함께 사는 방식이 이상적인 양로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2. 귀하께서는 재택양로의 인해 노인과 자녀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3. 귀하는 중국의 경로문화가 노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생각하십니까?
	e4. 귀하는 경로문화의 발전이 노인복지향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5. 귀하는 노인층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절 기초통계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실시하기 전 각 항목별 기초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제도’ 설문분석 결과(A항목)

첫 번째 질문으로 20대부터 60대이상까지 중국인 대상으로 중국 노인복지제도를 물어본 설문문항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중국의 노인복지제도를 알고 있다고 물어보았으며, 두 번째는 중국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만족에 대한 질문이었다. 세 번째 질문의 양로보험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물어보았다. 넷 번째 질문의 현재 양로보험정책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다고 물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의 노인층 소득수준이 노후생활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물어보았다.

첫 번째 항목의 경우 평균 3.48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항목의 경우 평균 3.57로 나타났다. 셋 번째 항목의 경우 평균 3.41으로 나타났다. 넷 번째 항목 평균 3.5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항목 평균 3.12로 나타났다. 또한 3항목 모두 에서 대체적으로 중국유학생들의 경우,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5항목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중국 노인복지제도를 만족할 것 같다.하지만 충분히 되지 않다.

<표4-1> ‘노인복지제도’ 설문결과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1	귀하는 중국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3.48	1.61	1	5
A2	귀하께서는 중국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3.57	1.41	1	5
A3	귀하는 양로보험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십니까?	3.41	1.40	1	5
A4	귀하는 현재 양로보험정책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53	1.38	1	5
A5	귀하는 현재 중국의 노인층 소득수준이 노후생활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2	1.71	1	5

2) ‘경제적’ 설문분석 결과(B항목)

경제적 요인의 경우 4가지 질문하였다. ‘현재 노인층의 양로 보조금을 올려야 했다’의 평균은 4.22로 가장 높았다. ‘노인층의 의료비를 정부가 지급해야 했다’의 항목이 4.21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층이 경제적인 활동에 참가해야 했다’의 평균은 3.41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다’의 평균은 4.10으로 나타났다.

〈표4-2〉 '경제적 요인' 설문결과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B1	귀하는 현재 노인층의 양로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22	1.09	1	5
B2	귀하는 노인층의 의료비를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21	1.11	1	5
B3	귀하는 노인층이 경제적인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41	1.76	1	5
B4	귀하는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0	1.16	1	5

3) '정책적' 설문분석 결과(C항목)

정책적 요인의 경우 5가지 질문하였다. '노인 권익보장정책을 통해 노후생활이 개선됐다'의 평균은 4.22로 가장 높았다. '노인문화교육정책으로 노인의 자질 수준이 향상 됐다'의 항목이 4.03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료정책을 통해 노인층의 평균 수명이 향상됐다'의 평균은 4.17로 나타났다. '노인서비스 정책을 통해 노인 요양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의 평균은 4.10으로 나타났다. '노인 사회참여정책이 노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의 평균은 4.00으로 나타났다.

<표4-3> '정책적 요인' 설문결과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값
C1	귀하께서는 노인문화교육정책으로 노인의 자질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3	1.31	1	5
C2	귀하께서는 노인의료정책을 통해 노인층의 평균 수명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7	1.11	1	5
C3	귀하께서는 노인서비스 정책을 통해 노인요양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4.10	1.20	1	5
C4	귀하께서는 노인 사회참여정책이 노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00	1.23	1	5
C5	귀하께서는 노인 권익보장정책을 통해 노후생활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22	1.10	1	5

4) '사회적' 설문분석 결과(D항목)

사회적 요인의 경우 6가지 질문하였다. '중국의 노인복지 보장정책의 개선이 필요했다'의 평균은 4.33로 가장 높았다. '노인복지제도 발전을 위해 노인층의 사회활동 참여가 했다'의 항목이 4.14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 수준의 차이가 심했다'의 평균은 4.19로 나타났다.

'재택양로의 방식이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했다'의 평균은 3.95로 나타났다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했다'의 평균은 4.23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사회활동을 통해 노후생활의 개선됐다'의 평균은 4.21으로 나타났다.

<표4-4> '사회적 요인' 설문결과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값
D1	귀하는 노인복지제도 발전을 위해 노인층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십니까?	4.14	1.13	1	5
D2	귀하는 중국의 노인복지 보장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33	0.93	1	5
D3	귀하는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 수준의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9	1.31	1	5
D4	귀하는 재택양로의 방식이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95	1.25	1	5
D5	귀하께서는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23	0.95	1	5
D6	귀하께서는 노인이 사회활동을 통해 노후 생활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21	1.02	1	5

5) '가족문화적 요인' 설문분석 결과(E항목)

가족문화적 요인의 노인층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제공해야 했다'의 평균은 4.22으로 가장 높았다. '노인과 자녀가 함께 사는 방식이 이상적인 양로 유형이라고 생각했다'의 항목이 3.40으로 나타났으며, '재택양로의 인해 노인과 자녀의 관계가 좋아졌다'의 평균은 3.56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로문화가 노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됐다'의 평균은 4.18로 나타났다. '경로문화의 발전이 노인복지향상에 중요했다'의 평균은 4.16로 나타났다.

<표4-5> '가족문화적 요인' 설문결과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E1	귀하께서는 노인과 자녀가 함께 사는 방식이 이상적인 양로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40	1.55	1	5
E2	귀하께서는 재택양로의 인해 노인과 자녀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56	1.54	1	5
E3	귀하는 중국의 경로문화가 노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생각하십니까?	4.18	0.99	1	5
E4	귀하는 경로문화의 발전이 노인복지향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6	1.08	1	5
E5	귀하는 노인층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22	1.12	1	5

제 2절 T-test 분석 결과

1. 성별에 따른 T-test 검증결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인식(A항목)

<표4-6> 성별에 따른 A항목의 t-검정결과표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a1	남성	205	3.6878	1.18822	3.751	0.000** *
	여성	126	3.1587	1.33514		
a2	남성	205	3.7122	1.13332	2.722	0.007**
	여성	126	3.3492	1.24783		
a3	남성	205	3.5512	1.12178	2.712	0.007**
	여성	126	3.1905	1.25675		
a4	남성	205	3.5805	1.12442	0.879	0.380
	여성	126	3.4603	1.25635		
a5	남성	205	3.1366	1.26059	0.118	0.906
	여성	126	3.1190	1.38914		

*p<0.05, **p<0.01, ***p<0.001

A항목의 t-검정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다.

a1 항목인 ‘귀하는 중국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중국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2항목 ‘귀하께서는 중국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과 a3 항목 ‘귀하는 양로보험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십니까?’도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반면, a4항목 ‘귀하는 현재 양로보험정책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과 a5항목 ‘귀하는 현재 중국의 노인층 소득수준이 노후생활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은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적 요인(B항목)

<표4-7> 성별에 따른 B항목의 t-검정결과표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b1	남성	205	4.2537	1.03566	0.732	0.465
	여성	126	4.1667	1.07145		
b2	남성	205	4.2488	1.02974	0.753	0.452
	여성	126	4.1587	1.09845		
b3	남성	205	3.3122	1.36845	-1.729	0.085
	여성	126	3.5714	1.24854		
b4	남성	205	4.1122	1.07653	0.138	0.890
	여성	126	4.0952	1.09126		

*p<0.05, **p<0.01, ***p<0.001

B항목의 t-검정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다.

t-검정결과, b3 항목 ‘귀하는 노인층이 경제적인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또한 b1 항목인 ‘귀하는 현재 노인층의 양로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과 b2항목 ‘노인층의 의료비를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과 b4항목 ‘귀하는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은 도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적 요인(C항목)

<표4-8> 성별에 따른 C항목의 t-검정결과표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c1	남성	205	4.0341	1.16476	0.018	0.691
	여성	126	4.0317	1.12383		
c2	남성	205	4.2878	0.96003	2.446	0.019*
	여성	126	3.9841	1.17292		

c3	남성	205	4.1707	1.06877	0.07465	1.442	0.084
	여성	126	3.9921	1.13487	0.10110		
c4	남성	205	4.0976	1.06193	0.07417	1.871	0.001**
	여성	126	3.8571	1.17789	0.10493		
c5	남성	205	4.2780	1.03647	0.07239	1.202	0.326
	여성	126	4.1349	1.07594	0.09585		

*p<0.05, **p<0.01, ***p<0.001

C항목의 t-검정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다.

c2항목 ‘귀하께서는 노인의료정책을 통해 노인층의 평균 수명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과 c3 항목 ‘귀하께서는 노인서비스 정책을 통해 노인요양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과 c4 항목 ‘귀하께서는 노인 사회참여정책이 노인에게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반면, c1항목 ‘귀하께서는 노인문화교육정책으로 노인의 자질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과 c5항목 ‘귀하께서는 노인 권익보장정책을 통해 노후생활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은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요인(D항목)

<표4-9> 성별에 따른 D항목의 t-검정결과표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d1	남성	205	4.1902	1.08822	0.985	0.522
	여성	126	4.0714	1.02901		
d2	남성	205	4.3854	0.93556	1.276	0.050
	여성	126	4.2460	1.00945		
d3	남성	205	4.2585	1.17844	1.321	0.721
	여성	126	4.0873	1.08826		
d4	남성	205	3.9902	1.12018	0.736	0.469
	여성	126	3.8968	1.12306		
d5	남성	남성	4.2537	0.96713	0.355	0.189
	여성	여성	4.2143	1.00086		

d6	남성	남성	4.2488	1.00076	0.06990	0.784	0.403
	여성	여성	4.1587	1.03856	0.09252		

*p<0.05, **p<0.01, ***p<0.001

D항목의 t-검정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다.

d2 항목인 ‘귀하는 중국의 노인복지 보장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반면, d1항목 ‘귀하는 노인복지제도 발전을 위해 노인층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십니까?’과 d3항목 ‘귀하는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 수준의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과 d4항목 ‘귀하는 재택양로의 방식이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d5 항목 ‘귀하께서는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과 d6 항목 ‘귀하께서는 노인이 사회활동을 통해 노후생활의 개선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은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족문화적 요인(E항목)

<표4-10> 성별에 따른 E항목의 t-검정결과표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e1	남성	205	3.4341	1.23741	0.488	0.626
	여성	126	3.3651	1.26872		
e2	남성	205	3.6244	1.24868	1.167	0.244
	여성	126	3.4603	1.23061		
e3	남성	205	4.2829	0.92776	2.379	0.018*
	여성	126	4.0159	1.08800		
e4	남성	205	4.2098	1.03843	0.906	0.366
	여성	126	4.1032	1.04176		
e5	남성	205	4.2195	1.07813	-0.155	0.877
	여성	126	4.2381	1.03095		

*p<0.05, **p<0.01, ***p<0.001

E항목의 t-검정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다.

e3 항목인 ‘귀하는 중국의 경로문화가 노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반면, e1항목 ‘귀하께서는 노인과 자녀가 함께 사는 방식이 이상적인 양로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과 e2항목 ‘귀하께서는 재택양로의 인해 노인과 자녀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4항목 ‘귀하는 경로문화의 발전이 노인복지향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e5 항목 ‘귀하는 노인층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은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절 Anova 분석 결과

1. 나이에 따른 Anova 검증결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이’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 ANOVA-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 표본 ANOVA-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인식(A항목)

<표4-11> 나이에 따른 A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요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a1	집단 간	33.892	4	8.473	5.538	0.000***
	집단 내	498.797	326	1.530		
	전체	532.689	330			
a2	집단 간	15.674	4	3.919	2.831	0.025*
	집단 내	451.262	326	1.384		
	전체	466.937	330			
a3	집단 간	20.543	4	5.136	3.773	0.005**
	집단 내	443.753	326	1.361		
	전체	464.296	330			
a4	집단 간	8.799	4	2.200	1.602	0.173
	집단 내	447.552	326	1.373		
	전체	456.350	330			
a5	집단 간	11.230	4	2.807	1.651	0.161
	집단 내	554.184	326	1.700		
	전체	565.414	330			

*p<0.05, **p<0.01, ***p<0.001

<표4-12> 나이에 따른 A1 항목의 사후검정표

나이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20대	30대	-0.62811	0.24614	0.167	-1.3906	0.1344
	40대	-0.68218	0.23412	0.078	-1.4075	0.0431
	50대	-1.00372***	0.21527	0.000***	-1.6706	-0.3368
	60대	-0.77837	0.26567	0.075	-1.6014	0.0447
30대	20대	0.62811	0.24614	0.167	-0.1344	1.3906
	40대	-0.05407	0.22107	1.000	-0.7389	0.6308
	50대	-0.37561	0.20100	0.480	-0.9983	0.2471
	60대	-0.15026	0.25425	0.986	-0.9379	0.6374
40대	20대	0.68218	0.23412	0.078	-0.0431	1.4075
	30대	0.05407	0.22107	1.000	-0.6308	0.7389
	50대	-0.32154	0.18608	0.561	-0.8980	0.2549
	60대	-0.09619	0.24263	0.997	-0.8478	0.6555
50대	20대	1.00372***	0.21527	0.000***	0.3368	1.6706
	30대	0.37561	0.20100	0.480	-0.2471	0.9983
	40대	0.32154	0.18608	0.561	-0.2549	0.8980
	60대	0.22535	0.22449	0.908	-0.4701	0.9208
60대	20대	0.77837	0.26567	0.075	-0.0447	1.6014
	30대	0.15026	0.25425	0.986	-0.6374	0.9379
	40대	0.09619	0.24263	0.997	-0.6555	0.8478
	50대	-0.22535	0.22449	0.908	-0.9208	0.4701

*p<0.05, **p<0.01, ***p<0.001

<표4-13> 나이에 따른 A2 항목의 사후검정표

나이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20대	30대	-0.29814	0.23412	0.805	-1.0234	0.4271
	40대	-0.64421	0.22268	0.082	-1.3341	0.0457
	50대	-0.58751	0.20475	0.086	-1.2218	0.0468
	60대	-0.38176	0.25269	0.684	-1.1646	0.4011
30대	20대	0.29814	0.23412	0.805	-0.4271	1.0234
	40대	-0.34608	0.21027	0.608	-0.9975	0.3053
	50대	-0.28938	0.19118	0.683	-0.8816	0.3029
	60대	-0.08362	0.24183	0.998	-0.8328	0.6655
40대	20대	0.64421	0.22268	0.082	-0.0457	1.3341
	30대	0.34608	0.21027	0.608	-0.3053	0.9975
	50대	0.05670	0.17700	0.999	-0.4916	0.6050

	60대	0.26245	0.23078	0.862	-0.4525	0.9774
50대	20대	0.58751	0.20475	0.086	-0.0468	1.2218
	30대	0.28938	0.19118	0.683	-0.3029	0.8816
	40대	-0.05670	0.17700	0.999	-0.6050	0.4916
	60대	0.20575	0.21353	0.920	-0.4557	0.8672
60대	20대	0.38176	0.25269	0.684	-0.4011	1.1646
	30대	0.08362	0.24183	0.998	-0.6655	0.8328
	40대	-0.26245	0.23078	0.862	-0.9774	0.4525
	50대	-0.20575	0.21353	0.920	-0.8672	0.4557

*p<0.05, **p<0.01, ***p<0.001

<표4-14> 나이에 따른 A3 항목의 사후검정표

	나이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20대	30대	-0.08540	0.23216	0.998	-0.8046	0.6338
	40대	-0.44305	0.22082	0.404	-1.1272	0.2411
	50대	-.65347*	0.20304	0.037	-1.2825	-0.0245
	60대	-0.41729	0.25058	0.597	-1.1936	0.3590
30대	20대	0.08540	0.23216	0.998	-0.6338	0.8046
	40대	-0.35765	0.20852	0.568	-1.0036	0.2883
	50대	-0.56807	0.18958	0.064	-1.1554	0.0192
	60대	-0.33188	0.23981	0.751	-1.0748	0.4110
40대	20대	0.44305	0.22082	0.404	-0.2411	1.1272
	30대	0.35765	0.20852	0.568	-0.2883	1.0036
	50대	-0.21042	0.17552	0.837	-0.7542	0.3333
	60대	0.02576	0.22885	1.000	-0.6832	0.7347
50대	20대	.65347*	0.20304	0.037	0.0245	1.2825
	30대	0.56807	0.18958	0.064	-0.0192	1.1554
	40대	0.21042	0.17552	0.837	-0.3333	0.7542
	60대	0.23619	0.21174	0.871	-0.4198	0.8922
60대	20대	0.41729	0.25058	0.597	-0.3590	1.1936
	30대	0.33188	0.23981	0.751	-0.4110	1.0748
	40대	-0.02576	0.22885	1.000	-0.7347	0.6832
	50대	-0.23619	0.21174	0.871	-0.8922	0.4198

*p<0.05, **p<0.01, ***p<0.001

A항목의 ANOVA-검정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다.

a1항목인 ‘귀하는 중국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나

이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층에 따라 20대하고 50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3항목 ‘귀하는 양로보험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십니까?’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층에 따라 20대하고 50대, 40대하고 20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2항목 ‘귀하께서는 중국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과 a4항목 ‘귀하는 현재 양로보험정책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과 a5항목 ‘귀하는 현재 중국의 노인층 소득수준이 노후생활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은 나이의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적 요인(B항목)

<표4-15>나이에 따른 B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요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b1	집단 간	6.967	4	1.742	1.595	0.175
	집단 내	355.933	326	1.092		
	전체	362.900	330			
b2	집단 간	4.352	4	1.088	0.976	0.421
	집단 내	363.419	326	1.115		
	전체	367.770	330			
b3	집단 간	4.565	4	1.141	0.644	0.631
	집단 내	577.556	326	1.772		
	전체	582.121	330			
b4	집단 간	5.381	4	1.345	1.154	0.331
	집단 내	379.918	326	1.165		
	전체	385.299	330			

*p<0.05, **p<0.01, ***p<0.001

B항목의 ANOVA-검정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다.

ANOVA-검정결과, b1 항목인 ‘귀하는 현재 노인층의 양로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과 b2항목 ‘노인층의 의료비를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3 항목 ‘귀하는 노인층이 경제적인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그리고 b4 ‘귀하는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은 항목에 대해서 나이에 따른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적 요인(C항목)

<표4-16> 나이에 따른 C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요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c1	집단 간	9.648	4	2.412	1.850	0.119
	집단 내	424.987	326	1.304		
	전체	434.634	330			
c2	집단 간	7.685	4	1.921	1.742	0.140
	집단 내	359.500	326	1.103		
	전체	367.184	330			
c3	집단 간	7.970	4	1.993	1.672	0.156
	집단 내	388.538	326	1.192		
	전체	396.508	330			
c4	집단 간	9.419	4	2.355	1.926	0.106
	집단 내	398.569	326	1.223		
	전체	407.988	330			
c5	집단 간	7.749	4	1.937	1.766	0.135
	집단 내	357.707	326	1.097		
	전체	365.456	330			

*p<0.05, **p<0.01, ***p<0.001

C항목의 ANOVA 검정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다.

c1항목 ‘귀하께서는 노인문화교육정책으로 노인의 자질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과 c2항목 ‘귀하께서는 노인의료정책을 통해 노인층의 평균 수명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과 c3항목 ‘귀하께서는 노인서비스 정책을 통해 노인요양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c4항목 ‘귀하께서는 노인 사회참여정책이 노인에게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하고 c5항목 ‘귀하께서는 노인 권익보장정책을 통해 노후생활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은 나이 층의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요인(D항목)

<표4-17> 나이에 따른 D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요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d1	집단-간	3.852	4	0.963	0.846	0.497
	집단-내	371.187	326	1.139		
	전체	375.039	330			
d2	집단-간	7.605	4	1.901	2.067	0.085
	집단-내	299.839	326	0.920		
	전체	307.444	330			
d3	집단-간	2.892	4	0.723	0.547	0.701

	집단-내	430.733	326	1.321		
	전체	433.625	330			
d4	집단-간	2.014	4	0.504	0.398	0.810
	집단-내	412.306	326	1.265		
	전체	414.320	330			
d5	집단-간	7.358	4	1.840	1.942	0.103
	집단-내	308.787	326	0.947		
	전체	316.145	330			
d6	집단-간	11.854	4	2.963	2.946	0.020*
	집단-내	327.917	326	1.006		
	전체	339.770	330			

*p<0.05, **p<0.01, ***p<0.001

<표4-18> 나이에 따른 D6 항목의 사후검정표

	나이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20대	30대	0.41770	0.19957	0.359	-0.2006	1.0360
	40대	0.02786	0.18983	1.000	-0.5602	0.6159
	50대	-0.13694	0.17454	0.961	-0.6777	0.4038
	60대	-0.02916	0.21541	1.000	-0.6965	0.6382
30대	20대	-0.41770	0.19957	0.359	-1.0360	0.2006
	40대	-0.38984	0.17925	0.318	-0.9451	0.1655
	50대	-.55464*	0.16297	0.022	-1.0595	-0.0498
	60대	-0.44686	0.20615	0.322	-1.0855	0.1918
40대	20대	-0.02786	0.18983	1.000	-0.6159	0.5602
	30대	0.38984	0.17925	0.318	-0.1655	0.9451
	50대	-0.16480	0.15088	0.879	-0.6322	0.3026
	60대	-0.05703	0.19673	0.999	-0.6665	0.5524
50대	20대	0.13694	0.17454	0.961	-0.4038	0.6777
	30대	.55464*	0.16297	0.022*	0.0498	1.0595
	40대	0.16480	0.15088	0.879	-0.3026	0.6322
	60대	0.10778	0.18202	0.986	-0.4561	0.6717
60대	20대	0.02916	0.21541	1.000	-0.6382	0.6965
	30대	0.44686	0.20615	0.322	-0.1918	1.0855
	40대	0.05703	0.19673	0.999	-0.5524	0.6665
	50대	-0.10778	0.18202	0.986	-0.6717	0.4561

*p<0.05, **p<0.01, ***p<0.001

D항목의 ANOVA 검정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다.

d6항목인 ‘귀하께서는 노인이 사회활동을 통해 노후생활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층에 따라 30대하고 50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d1항목 ‘귀하는 노인복지제도 발전을 위해 노인층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십니까?’, d2항목 ‘귀하는 중국의 노인복지 보장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과 d3항목 ‘귀하는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 수준의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과 d4항목 ‘귀하는 재택양로의 방식이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d5항목 ‘귀하께서는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은 나이의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족문화적 요인(E항목)

<표4-19> 나이에 따른 E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요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e1	집단 간	10.239	4	2.560	1.657	0.160
	집단 내	503.701	326	1.545		
	전체	513.940	330			
e2	집단 간	7.071	4	1.768	1.147	0.334
	집단 내	502.410	326	1.541		
	전체	509.480	330			
e3	집단 간	5.242	4	1.310	1.319	0.263
	집단 내	323.882	326	0.994		
	전체	329.124	330			
e4	집단 간	10.053	4	2.513	2.365	0.053
	집단 내	346.473	326	1.063		
	전체	356.526	330			
e5	집단 간	3.969	4	0.992	0.884	0.474
	집단 내	366.038	326	1.123		
	전체	370.006	330			

*p<0.05, **p<0.01, ***p<0.001

E항목의 ANOVA 검정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다.

e1항목 ‘귀하께서는 노인과 자녀가 함께 사는 방식이 이상적인 양로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과 e2항목 ‘귀하께서는 재택양로의 인해 노인과 자녀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3항목 ‘귀하는 중국의 경로문화가 노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생각하십니까?’, e4항목 ‘귀하는 경로문화의 발전이 노인복지향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e5항목 ‘귀하는 노인층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은 나이의 인식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력에 따른 Anova 검증결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 ANOVA-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 표본 ANOVA-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인식(A항목)

<표4-20> 학력에 따른 A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요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a1	집단 간	21.515	5	4.303	2.736	0.019*
	집단 내	511.174	325	1.573		
	전체	532.689	330			
a2	집단 간	30.929	5	6.186	4.611	0.000***
	집단 내	436.007	325	1.342		
	전체	466.937	330			
a3	집단 간	26.792	5	5.358	3.981	0.002**
	집단 내	437.504	325	1.346		
	전체	464.296	330			
a4	집단 간	29.768	5	5.954	4.536	0.001**
	집단 내	426.582	325	1.313		
	전체	456.350	330			
a5	집단 간	15.007	5	3.001	1.772	0.118
	집단 내	550.406	325	1.694		
	전체	565.414	330			

*p<0.05, **p<0.01, ***p<0.001

<표4-21> 학력에 따른 A1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417	0.362	0.932	-1.63	0.80
	고등학교 졸업	-0.662	0.325	0.530	-1.75	0.43
	대학교 졸업	-0.398	0.315	0.901	-1.45	0.66
	대학원	0.273	0.395	0.993	-1.05	1.59

	졸업 가타	-0.662	0.357	0.633	-1.86	0.53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417	0.362	0.932	-0.80	1.63
	고등학교 졸업	-0.245	0.249	0.965	-1.08	0.59
	대학교 졸업	0.018	0.236	1.000	-0.77	0.81
	대학원 졸업	0.690	0.335	0.516	-0.43	1.81
	기타	-0.246	0.290	0.982	-1.22	0.72
	초등학교 졸업	0.662	0.325	0.530	-0.43	1.75
	중학교 졸업	0.245	0.249	0.965	-0.59	1.08
고등학 교 졸업	대학교 졸업	0.264	0.175	0.810	-0.32	0.85
	대학원 졸업	0.935	0.295	0.077	-0.05	1.92
	기타	0.000	0.243	1.000	-0.81	0.81
	초등학교 졸업	0.398	0.315	0.901	-0.66	1.45
	중학교 졸업	-0.018	0.236	1.000	-0.81	0.77
대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0.264	0.175	0.810	-0.85	0.32
	대학원 졸업	0.671	0.284	0.350	-0.28	1.62
	기타	-0.264	0.229	0.931	-1.03	0.50
	초등학교 졸업	-0.273	0.395	0.993	-1.59	1.05
	중학교 졸업	-0.690	0.335	0.516	-1.81	0.43
대학원 졸업	고등학교 졸업	-0.935	0.295	0.077	-1.92	0.05
	대학교 졸업	-0.671	0.284	0.350	-1.62	0.28
	기타	-0.935	0.330	0.157	-2.04	0.17
	초등학교 졸업	0.662	0.357	0.633	-0.53	1.86
기타	초등학교 졸업	0.662	0.357	0.633	-0.53	1.86

	중학교 졸업	0.246	0.290	0.982	-0.72	1.22
	고등학교 졸업	0.000	0.243	1.000	-0.81	0.81
	대학교 졸업	0.264	0.229	0.931	-0.50	1.03
	대학원 졸업	0.935	0.330	0.157	-0.17	2.04

*p<0.05, **p<0.01, ***p<0.001

<표4-22> 학력에 따른 A2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 교 졸업	중학교 졸업	-0.167	0.334	0.998	-1.29	0.95
	고등학교 졸업	-0.663	0.301	0.433	-1.67	0.34
	대학교 졸업	-0.238	0.291	0.985	-1.21	0.74
	대학원 졸업	0.539	0.364	0.823	-0.68	1.76
	기타	-0.440	0.330	0.878	-1.55	0.66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167	0.334	0.998	-0.95	1.29
	고등학교 졸업	-0.497	0.230	0.461	-1.27	0.27
	대학교 졸업	-0.071	0.218	1.000	-0.80	0.66
	대학원 졸업	0.705	0.309	0.394	-0.33	1.74
	기타	-0.274	0.268	0.959	-1.17	0.62
고등학 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663	0.301	0.433	-0.34	1.67
	중학교 졸업	0.497	0.230	0.461	-0.27	1.27
	대학교 졸업	0.426	0.162	0.228	-0.12	0.97
	대학원 졸업	1.202	0.272	0.002**	0.29	2.11

대학교 졸업	기타	0.223	0.224	0.963	-0.53	0.97
	초등학교 졸업	0.238	0.291	0.985	-0.74	1.21
	중학교 졸업	0.071	0.218	1.000	-0.66	0.80
	고등학교 졸업	-0.426	0.162	0.228	-0.97	0.12
	대학원 졸업	0.776	0.262	0.122	-0.10	1.65
	기타	-0.203	0.211	0.969	-0.91	0.51
대학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539	0.364	0.823	-1.76	0.68
	중학교 졸업	-0.705	0.309	0.394	-1.74	0.33
	고등학교 졸업	-1.202	0.272	0.002**	-2.11	-0.29
	대학교 졸업	-0.776	0.262	0.122	-1.65	0.10
	기타	-0.979	0.305	0.069	-2.00	0.04
	기타	0.440	0.330	0.878	-0.66	1.55
기타	초등학교 졸업	0.440	0.330	0.878	-0.66	1.55
	중학교 졸업	0.274	0.268	0.959	-0.62	1.17
	고등학교 졸업	-0.223	0.224	0.963	-0.97	0.53
	대학교 졸업	0.203	0.211	0.969	-0.51	0.91
	대학원 졸업	0.979	0.305	0.069	-0.04	2.00
	기타	0.979	0.305	0.069	-0.04	2.00

*p<0.05, **p<0.01, ***p<0.001

<표4-23> 학력에 따른 A3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 교 졸업	중학교 졸업	-0.472	0.335	0.850	-1.59	0.65
	고등학교 졸업	-0.773	0.301	0.255	-1.78	0.23
	대학교	-0.486	0.292	0.734	-1.46	0.49

	졸업 대학원	0.336	0.365	0.974	-0.89	1.56
	졸업 가타	-0.440	0.331	0.879	-1.55	0.67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0.472	0.335	0.850	-0.65	1.59
	고등학교	-0.301	0.231	0.888	-1.07	0.47
	대학교	-0.014	0.219	1.000	-0.75	0.72
	대학원	0.808	0.310	0.239	-0.23	1.84
	졸업 기타	0.032	0.268	1.000	-0.87	0.93
	초등학교	0.773	0.301	0.255	-0.23	1.78
고등학 교 졸업	중학교	0.301	0.231	0.888	-0.47	1.07
	대학교	0.287	0.162	0.678	-0.25	0.83
	대학원	1.109	0.273	0.006**	0.20	2.02
	졸업 기타	0.333	0.224	0.820	-0.42	1.08
	초등학교	0.486	0.292	0.734	-0.49	1.46
대학교 졸업	중학교	0.014	0.219	1.000	-0.72	0.75
	고등학교	-0.287	0.162	0.678	-0.83	0.25
	대학원	0.822	0.262	0.084	-0.06	1.70
	졸업 기타	0.046	0.212	1.000	-0.66	0.76
	초등학교	-0.336	0.365	0.974	-1.56	0.89
대학원 졸업	중학교	-0.808	0.310	0.239	-1.84	0.23
	고등학교	-1.109	0.273	0.006**	-2.02	-0.20
	대학교	-0.822	0.262	0.084	-1.70	0.06
	졸업 기타	-0.776	0.305	0.266	-1.80	0.25

기타	초등학교 졸업	0.440	0.331	0.879	-0.67	1.55
	중학교 졸업	-0.032	0.268	1.000	-0.93	0.87
	고등학교 졸업	-0.333	0.224	0.820	-1.08	0.42
	대학교 졸업	-0.046	0.212	1.000	-0.76	0.66
	대학원 졸업	0.776	0.305	0.266	-0.25	1.80

*p<0.05, **p<0.01, ***p<0.001

<표4-24> 학력에 따른 A4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222	0.331	0.994	-1.33	0.89
	고등학교 졸업	-0.669	0.297	0.411	-1.66	0.33
	대학교 졸업	-0.372	0.288	0.893	-1.34	0.59
	대학원 졸업	0.514	0.361	0.844	-0.69	1.72
	기타	-0.526	0.326	0.762	-1.62	0.57
	초등학교 졸업	0.222	0.331	0.994	-0.89	1.33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0.446	0.228	0.573	-1.21	0.32
	대학교 졸업	-0.150	0.216	0.993	-0.87	0.57
	대학원 졸업	0.737	0.306	0.328	-0.29	1.76
	기타	-0.303	0.265	0.933	-1.19	0.58
	초등학교 졸업	0.669	0.297	0.411	-0.33	1.66
	고등학교 졸업	0.446	0.228	0.573	-0.32	1.21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0.297	0.160	0.631	-0.24	0.83
	대학원 졸업	1.183	0.269	0.002**	0.28	2.08

	졸업 기타	0.143	0.222	0.995	-0.60	0.88
대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372	0.288	0.893	-0.59	1.34
	중학교 졸업	0.150	0.216	0.993	-0.57	0.87
	고등학교 졸업	-0.297	0.160	0.631	-0.83	0.24
	대학원 졸업	0.886	0.259	0.042*	0.02	1.75
	기타	-0.154	0.209	0.990	-0.85	0.55
	초등학교 졸업	-0.514	0.361	0.844	-1.72	0.69
대학원 졸업	중학교 졸업	-0.737	0.306	0.328	-1.76	0.29
	고등학교 졸업	-1.183	0.269	0.002**	-2.08	-0.28
	대학교 졸업	-0.886	0.259	0.042*	-1.75	-0.02
	기타	-1.040	0.301	0.038*	-2.05	-0.03
	초등학교 졸업	0.526	0.326	0.762	-0.57	1.62
	중학교 졸업	0.303	0.265	0.933	-0.58	1.19
기타	고등학교 졸업	-0.143	0.222	0.995	-0.88	0.60
	대학교 졸업	0.154	0.209	0.990	-0.55	0.85
	대학원 졸업	1.040	0.301	0.038*	0.03	2.05
	기타					

*p<0.05, **p<0.01, ***p<0.001

A항목의 ANOVA-검정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다.

a2 항목 ‘귀하께서는 중국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에 대해서는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3 항목 ‘귀하는 양로보험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십니까?’에 대해서는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4 항목 ‘귀하는 현재 양로보험정책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 기타하고 대학원 졸업,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1 항목인 ‘귀하는 중국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과 a5항목인 ‘귀하는 현재 중국의 노인층 소득수준이 노후생활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은 학력의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적 요인(B항목)

<표4-25> 학력에 따른 B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요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b1	집단 간	13.910	5	2.782	2.591	0.026*
	집단 내	348.990	325	1.074		
	전체	362.900	330			
b2	집단 간	22.041	5	4.408	4.144	0.001**
	집단 내	345.730	325	1.064		
	전체	367.770	330			
b3	집단 간	5.946	5	1.189	.671	0.646
	집단 내	576.175	325	1.773		
	전체	582.121	330			
b4	집단 간	7.148	5	1.430	1.229	0.295
	집단 내	378.151	325	1.164		
	전체	385.299	330			

*p<0.05, **p<0.01, ***p<0.001

<표4-26> 학력에 따른 B1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028	0.299	1.000	-1.03	0.97
	고등학교 졸업	-0.622	0.269	0.376	-1.52	0.28
	대학교 졸업	-0.438	0.261	0.728	-1.31	0.43
	대학원 졸업	-0.483	0.326	0.821	-1.57	0.61
	가타	-0.632	0.295	0.470	-1.62	0.36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028	0.299	1.000	-0.97

	고등학교 졸업	-0.594	0.206	0.143	-1.28	0.10
	대학교 졸업	-0.410	0.195	0.493	-1.06	0.24
	대학원 졸업	-0.455	0.277	0.745	-1.38	0.47
	기타	-0.605	0.240	0.274	-1.41	0.20
고등학 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622	0.269	0.376	-0.28	1.52
	중학교 졸업	0.594	0.206	0.143	-0.10	1.28
	대학교 졸업	0.185	0.145	0.897	-0.30	0.67
	대학원 졸업	0.139	0.244	0.997	-0.68	0.95
	기타	-0.010	0.200	1.000	-0.68	0.66
대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438	0.261	0.728	-0.43	1.31
	중학교 졸업	0.410	0.195	0.493	-0.24	1.06
	고등학교 졸업	-0.185	0.145	0.897	-0.67	0.30
	대학원 졸업	-0.045	0.234	1.000	-0.83	0.74
	기타	-0.195	0.189	0.957	-0.83	0.44
대학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483	0.326	0.821	-0.61	1.57
	중학교 졸업	0.455	0.277	0.745	-0.47	1.38
	고등학교 졸업	-0.139	0.244	0.997	-0.95	0.68
	대학교 졸업	0.045	0.234	1.000	-0.74	0.83
	기타	-0.149	0.272	0.998	-1.06	0.76
기타	초등학교 졸업	0.632	0.295	0.470	-0.36	1.62
	중학교 졸업	0.605	0.240	0.274	-0.20	1.41
	고등학교	0.010	0.200	1.000	-0.66	0.68

	졸업 대학교	0.195	0.189	0.957	-0.44	0.83
	졸업 대학원	0.149	0.272	0.998	-0.76	1.06

*p<0.05, **p<0.01, ***p<0.001

<표4-27> 학력에 따른 B2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389	0.298	0.888	-1.39	0.61
	고등학교 졸업	-1.026	0.268	0.013*	-1.92	-0.13
	대학교 졸업	-0.825	0.259	0.075	-1.69	0.04
	대학원 졸업	-0.686	0.325	0.486	-1.77	0.40
	기타	-0.786	0.294	0.212	-1.77	0.20
	초등학교 졸업	0.389	0.298	0.888	-0.61	1.39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0.637	0.205	0.089	-1.32	0.05
	대학교 졸업	-0.436	0.194	0.413	-1.09	0.21
	대학원 졸업	-0.297	0.275	0.948	-1.22	0.62
	기타	-0.397	0.238	0.734	-1.20	0.40
	초등학교 졸업	1.026	0.268	0.013*	0.13	1.92
	중학교 졸업	0.637	0.205	0.089	-0.05	1.32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0.201	0.144	0.854	-0.28	0.68
	대학원 졸업	0.340	0.242	0.853	-0.47	1.15
	기타	0.240	0.199	0.919	-0.43	0.91
	초등학교 졸업	0.825	0.259	0.075	-0.04	1.69
	중학교 졸업	0.436	0.194	0.413	-0.21	1.09

	졸업 고등학교	-0.201	0.144	0.854	-0.68	0.28
	졸업 대학원	0.139	0.233	0.996	-0.64	0.92
	졸업 기타	0.038	0.188	1.000	-0.59	0.67
대학원 졸업	초등학교	0.686	0.325	0.486	-0.40	1.77
	졸업 중학교	0.297	0.275	0.948	-0.62	1.22
	졸업 고등학교	-0.340	0.242	0.853	-1.15	0.47
	졸업 대학교	-0.139	0.233	0.996	-0.92	0.64
	졸업 기타	-0.100	0.271	1.000	-1.01	0.81
	초등학교	0.786	0.294	0.212	-0.20	1.77
기타	졸업 중학교	0.397	0.238	0.734	-0.40	1.20
	졸업 고등학교	-0.240	0.199	0.919	-0.91	0.43
	졸업 대학교	-0.038	0.188	1.000	-0.67	0.59
	졸업 대학원	0.100	0.271	1.000	-0.81	1.01
	졸업					
	졸업					

*p<0.05, **p<0.01, ***p<0.001

B항목의 ANOVA-검정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다.

b2 항목인 ‘노인층의 의료비를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1 항목인 ‘귀하는 현재 노인층의 양로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3 항목 ‘귀하는 노인층이 경제적인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b4 ‘귀하는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은 학력층의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적 요인(C항목)

<표4-28> 학력에 따른 C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요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c1	집단 간	8.138	5	1.628	1.240	0.290
	집단 내	426.496	325	1.312		
	전체	434.634	330			
c2	집단 간	23.523	5	4.705	4.449	0.001**
	집단 내	343.661	325	1.057		
	전체	367.184	330			
c3	집단 간	11.220	5	2.244	1.893	0.095
	집단 내	385.288	325	1.186		
	전체	396.508	330			
c4	집단 간	14.134	5	2.827	2.333	0.042*
	집단 내	393.854	325	1.212		
	전체	407.988	330			
c5	집단 간	27.595	5	5.519	5.309	0.000***
	집단 내	337.861	325	1.040		
	전체	365.456	330			

*p<0.05, **p<0.01, ***p<0.001

<표4-29> 학력에 따른 C2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 교 졸업	중학교 졸업	-0.639	0.297	0.464	-1.63	0.35
	고등학교 졸업	-0.956	0.267	0.027*	-1.85	-0.06
	대학교 졸업	-0.856	0.259	0.055	-1.72	0.01
	대학원 졸업	-0.251	0.324	0.988	-1.33	0.83
	기타	-0.504	0.293	0.706	-1.49	0.48
	초등학교 졸업	0.639	0.297	0.464	-0.35	1.63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0.317	0.204	0.791	-1.00	0.37
	대학교 졸업	-0.217	0.194	0.939	-0.87	0.43
	대학원 졸업	0.388	0.274	0.849	-0.53	1.31
	기타	0.135	0.238	0.997	-0.66	0.93
	초등학교	0.956	0.267	0.027*	0.06	1.85

교 졸업	졸업 중학교	0.317	0.204	0.791	-0.37	1.00
	졸업 대학교	0.100	0.143	0.993	-0.38	0.58
	졸업 대학원	0.704	0.242	0.134	-0.10	1.51
	졸업 기타	0.451	0.199	0.400	-0.21	1.12
	초등학교	0.856	0.259	0.055	-0.01	1.72
	졸업 중학교	0.217	0.194	0.939	-0.43	0.87
대학교 졸업	졸업 고등학교	-0.100	0.143	0.993	-0.58	0.38
	졸업 대학원	0.604	0.233	0.243	-0.17	1.38
	졸업 기타	0.351	0.188	0.624	-0.28	0.98
	초등학교	0.251	0.324	0.988	-0.83	1.33
	졸업 중학교	-0.388	0.274	0.849	-1.31	0.53
	졸업 고등학교	-0.704	0.242	0.134	-1.51	0.10
대학원 졸업	졸업 대학교	-0.604	0.233	0.243	-1.38	0.17
	졸업 기타	-0.253	0.270	0.972	-1.16	0.65
	초등학교	0.504	0.293	0.706	-0.48	1.49
	졸업 중학교	-0.135	0.238	0.997	-0.93	0.66
	졸업 고등학교	-0.451	0.199	0.400	-1.12	0.21
	졸업 대학교	-0.351	0.188	0.624	-0.98	0.28
기타	졸업 대학원	0.253	0.270	0.972	-0.65	1.16

*p<0.05, **p<0.01, ***p<0.001

<표4-30> 학력에 따른 C4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 교 졸업	중학교 졸업	-0.250	0.318	0.987	-1.31	0.81
	고등학교 졸업	-0.586	0.286	0.522	-1.54	0.37
	대학교 졸업	-0.591	0.277	0.475	-1.52	0.34
	대학원 졸업	-0.010	0.346	1.000	-1.17	1.15
	기타	-0.342	0.314	0.946	-1.39	0.71
	초등학교 졸업	0.250	0.318	0.987	-0.81	1.31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0.336	0.219	0.798	-1.07	0.40
	대학교 졸업	-0.341	0.207	0.746	-1.03	0.35
	대학원 졸업	0.240	0.294	0.985	-0.74	1.22
	기타	-0.092	0.254	1.000	-0.94	0.76
	초등학교 졸업	0.586	0.286	0.522	-0.37	1.54
	중학교 졸업	0.336	0.219	0.798	-0.40	1.07
고등학 교 졸업	대학교 졸업	-0.005	0.154	1.000	-0.52	0.51
	대학원 졸업	0.576	0.259	0.423	-0.29	1.44
	기타	0.244	0.213	0.933	-0.47	0.96
	초등학교 졸업	0.591	0.277	0.475	-0.34	1.52
	중학교 졸업	0.341	0.207	0.746	-0.35	1.03
	고등학교 졸업	0.005	0.154	1.000	-0.51	0.52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0.581	0.249	0.367	-0.25	1.41
	기타	0.249	0.201	0.909	-0.42	0.92
	초등학교 졸업	0.010	0.346	1.000	-1.15	1.17

	중학교 졸업	-0.240	0.294	0.985	-1.22	0.74
	고등학교 졸업	-0.576	0.259	0.423	-1.44	0.29
	대학교 졸업	-0.581	0.249	0.367	-1.41	0.25
	기타	-0.332	0.289	0.933	-1.30	0.64
	초등학교 졸업	0.342	0.314	0.946	-0.71	1.39
기타	중학교 졸업	0.092	0.254	1.000	-0.76	0.94
	고등학교 졸업	-0.244	0.213	0.933	-0.96	0.47
	대학교 졸업	-0.249	0.201	0.909	-0.92	0.42
	대학원 졸업	0.332	0.289	0.933	-0.64	1.30

*p<0.05, **p<0.01, ***p<0.001

<표4-31> 학력에 따른 C5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 교 졸업	중학교 졸업	-0.167	0.294	0.997	-1.15	0.82
	고등학교 졸업	-0.883	0.265	0.051	-1.77	0.00
	대학교 졸업	-0.766	0.256	0.116	-1.62	0.09
	대학원 졸업	-0.258	0.321	0.986	-1.33	0.82
	기타	-0.415	0.291	0.844	-1.39	0.56
	초등학교 졸업	0.167	0.294	0.997	-0.82	1.15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0.716	0.203	0.031*	-1.40	-0.04
	대학교 졸업	-0.599	0.192	0.086	-1.24	0.04
	대학원 졸업	-0.092	0.272	1.000	-1.00	0.82

	기타	-0.248	0.236	0.953	-1.04	0.54
고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883	0.265	0.051	0.00	1.77
	중학교 졸업	0.716	0.203	0.031*	0.04	1.40
	대학교 졸업	0.117	0.142	0.984	-0.36	0.59
	대학원 졸업	0.625	0.240	0.240	-0.18	1.43
	기타	0.468	0.197	0.345	-0.19	1.13
	초등학교 졸업	0.766	0.256	0.116	-0.09	1.62
대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599	0.192	0.086	-0.04	1.24
	고등학교 졸업	-0.117	0.142	0.984	-0.59	0.36
	대학원 졸업	0.507	0.231	0.438	-0.26	1.28
	기타	0.351	0.186	0.615	-0.27	0.97
	초등학교 졸업	0.258	0.321	0.986	-0.82	1.33
대학원 졸업	중학교 졸업	0.092	0.272	1.000	-0.82	1.00
	고등학교 졸업	-0.625	0.240	0.240	-1.43	0.18
	대학교 졸업	-0.507	0.231	0.438	-1.28	0.26
	기타	-0.156	0.268	0.997	-1.05	0.74
	초등학교 졸업	0.415	0.291	0.844	-0.56	1.39
	중학교 졸업	0.248	0.236	0.953	-0.54	1.04
기타	고등학교 졸업	-0.468	0.197	0.345	-1.13	0.19
	대학교 졸업	-0.351	0.186	0.615	-0.97	0.27
	대학원 졸업	0.156	0.268	0.997	-0.74	1.05

*p<0.05, **p<0.01, ***p<0.001

C항목의 ANOVA-검정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다.

c2 항목 ‘귀하께서는 노인 사회참여정책이 노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5 항목 ‘귀하께서는 노인 권익보장정책을 통해 노후생활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1항목 ‘귀하께서는 노인문화교육정책으로 노인의 자질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과 c3 항목 ‘귀하께서는 노인서비스 정책을 통해 노인요양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c4 항목 ‘귀하께서는 노인 사회참여정책이 노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은 학력층의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요인(D항목)

<표4-32> 학력에 따른 D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요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d1	집단 간	11.778	5	2.356	2.108	0.064
	집단 내	363.261	325	1.118		
	전체	375.039	330			
d2	집단 간	13.433	5	2.687	2.970	0.012*
	집단 내	294.011	325	.905		
	전체	307.444	330			
d3	집단 간	16.112	5	3.222	2.508	0.030*
	집단 내	417.513	325	1.285		
	전체	433.625	330			
d4	집단 간	7.365	5	1.473	1.176	0.320
	집단 내	406.955	325	1.252		
	전체	414.320	330			
d5	집단 간	15.597	5	3.119	3.373	0.006**
	집단 내	300.548	325	.925		
	전체	316.145	330			
d6	집단 간	12.862	5	2.572	2.557	0.027*
	집단 내	326.909	325	1.006		
	전체	339.770	330			

*p<0.05, **p<0.01, ***p<0.001

<표4-33> 학력에 따른 D2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 교 졸업	중학교 졸업	-0.222	0.275	0.985	-1.14	0.70
	고등학교 졸업	-0.763	0.247	0.092	-1.59	0.06
	대학교 졸업	-0.584	0.239	0.313	-1.38	0.22
	대학원 졸업	-0.614	0.299	0.522	-1.62	0.39
	기타	-0.530	0.271	0.576	-1.44	0.38
	초등학교 졸업	0.222	0.275	0.985	-0.70	1.14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0.541	0.189	0.150	-1.17	0.09
	대학교 졸업	-0.362	0.179	0.540	-0.96	0.24
	대학원 졸업	-0.391	0.254	0.795	-1.24	0.46
	기타	-0.308	0.220	0.854	-1.04	0.43
	초등학교 졸업	0.763	0.247	0.092	-0.06	1.59
	중학교 졸업	0.541	0.189	0.150	-0.09	1.17
고등학 교 졸업	대학교 졸업	0.180	0.133	0.871	-0.26	0.62
	대학원 졸업	0.150	0.224	0.994	-0.60	0.90
	기타	0.233	0.184	0.899	-0.38	0.85
	초등학교 졸업	0.584	0.239	0.313	-0.22	1.38
	중학교 졸업	0.362	0.179	0.540	-0.24	0.96
	고등학교 졸업	-0.180	0.133	0.871	-0.62	0.26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0.030	0.215	1.000	-0.75	0.69
	기타	0.054	0.174	1.000	-0.53	0.64
	초등학교 졸업	0.614	0.299	0.522	-0.39	1.62

	중학교 졸업	0.391	0.254	0.795	-0.46	1.24
	고등학교 졸업	-0.150	0.224	0.994	-0.90	0.60
	대학교 졸업	0.030	0.215	1.000	-0.69	0.75
	기타	0.084	0.250	1.000	-0.75	0.92
	초등학교 졸업	0.530	0.271	0.576	-0.38	1.44
기타	중학교 졸업	0.308	0.220	0.854	-0.43	1.04
	고등학교 졸업	-0.233	0.184	0.899	-0.85	0.38
	대학교 졸업	-0.054	0.174	1.000	-0.64	0.53
	대학원 졸업	-0.084	0.250	1.000	-0.92	0.75

*p<0.05, **p<0.01, ***p<0.001

<표4-34> 학력에 따른 D3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417	0.327	0.898	-1.51	0.68
	고등학교 졸업	-0.818	0.294	0.175	-1.80	0.17
	대학교 졸업	-0.823	0.285	0.142	-1.78	0.13
	대학원 졸업	-0.761	0.357	0.475	-1.96	0.43
	기타	-0.526	0.323	0.754	-1.61	0.56
	초등학교 졸업	0.417	0.327	0.898	-0.68	1.51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0.401	0.225	0.675	-1.16	0.35
	대학교 졸업	-0.406	0.213	0.605	-1.12	0.31
	대학원 졸업	-0.344	0.303	0.935	-1.36	0.67
	기타	-0.109	0.262	0.999	-0.99	0.77

고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818	0.294	0.175	-0.17	1.80
	중학교 졸업	0.401	0.225	0.675	-0.35	1.16
	대학교 졸업	-0.005	0.158	1.000	-0.53	0.52
	대학원 졸업	0.057	0.266	1.000	-0.84	0.95
	기타	0.292	0.219	0.879	-0.44	1.03
대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823	0.285	0.142	-0.13	1.78
	중학교 졸업	0.406	0.213	0.605	-0.31	1.12
	고등학교 졸업	0.005	0.158	1.000	-0.52	0.53
	대학원 졸업	0.062	0.256	1.000	-0.80	0.92
	기타	0.297	0.207	0.840	-0.40	0.99
대학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761	0.357	0.475	-0.43	1.96
	중학교 졸업	0.344	0.303	0.935	-0.67	1.36
	고등학교 졸업	-0.057	0.266	1.000	-0.95	0.84
	대학교 졸업	-0.062	0.256	1.000	-0.92	0.80
	기타	0.235	0.298	0.987	-0.76	1.23
기타	초등학교 졸업	0.526	0.323	0.754	-0.56	1.61
	중학교 졸업	0.109	0.262	0.999	-0.77	0.99
	고등학교 졸업	-0.292	0.219	0.879	-1.03	0.44
	대학교 졸업	-0.297	0.207	0.840	-0.99	0.40
	대학원 졸업	-0.235	0.298	0.987	-1.23	0.76

*p<0.05, **p<0.01, ***p<0.001

<표4-35> 학력에 따른 D5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472	0.278	0.716	-1.40	0.46
	고등학교 졸업	-0.762	0.250	0.100	-1.60	0.07
	대학교 졸업	-0.852	0.242	0.032*	-1.66	-0.04
	대학원 졸업	-0.488	0.303	0.761	-1.50	0.53
	가타	-0.573	0.274	0.499	-1.49	0.34
	초등학교 졸업	0.472	0.278	0.716	-0.46	1.40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0.290	0.191	0.806	-0.93	0.35
	대학교 졸업	-0.380	0.181	0.495	-0.99	0.23
	대학원 졸업	-0.016	0.257	1.000	-0.88	0.84
	기타	-0.100	0.222	0.999	-0.84	0.64
	초등학교 졸업	0.762	0.250	0.100	-0.07	1.60
	중학교 졸업	0.290	0.191	0.806	-0.35	0.93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0.090	0.134	0.994	-0.54	0.36
	대학원 졸업	0.274	0.226	0.916	-0.48	1.03
	기타	0.189	0.186	0.959	-0.43	0.81
	초등학교 졸업	0.852	0.242	0.032*	0.04	1.66
	중학교 졸업	0.380	0.181	0.495	-0.23	0.99
	고등학교 졸업	0.090	0.134	0.994	-0.36	0.54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0.364	0.218	0.730	-0.36	1.09
	기타	0.279	0.176	0.771	-0.31	0.87
	초등학교 졸업	0.488	0.303	0.761	-0.53	1.50

졸업	졸업 중학교	0.016	0.257	1.000	-0.84	0.88
	졸업 고등학교	-0.274	0.226	0.916	-1.03	0.48
	졸업 대학교	-0.364	0.218	0.730	-1.09	0.36
	졸업 기타	-0.085	0.253	1.000	-0.93	0.76
	초등학교	0.573	0.274	0.499	-0.34	1.49
기타	졸업 중학교	0.100	0.222	0.999	-0.64	0.84
	졸업 고등학교	-0.189	0.186	0.959	-0.81	0.43
	졸업 대학교	-0.279	0.176	0.771	-0.87	0.31
	졸업 대학원	0.085	0.253	1.000	-0.76	0.93
	졸업					

*p<0.05, **p<0.01, ***p<0.001

<표4-36> 학력에 따른 D6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0.028	0.290	1.000	-1.00	0.94
	졸업 고등학교	-0.523	0.260	0.545	-1.39	0.35
	졸업 대학교	-0.426	0.252	0.722	-1.27	0.42
	졸업 대학원	-0.024	0.316	1.000	-1.08	1.03
	졸업 기타	-0.162	0.286	0.997	-1.12	0.79
	초등학교	0.028	0.290	1.000	-0.94	1.00
중학교 졸업	졸업 고등학교	-0.495	0.199	0.293	-1.16	0.17
	졸업 대학교	-0.399	0.189	0.487	-1.03	0.23
	졸업 대학원	0.004	0.268	1.000	-0.89	0.90
	졸업					

	기타	-0.135	0.232	0.997	-0.91	0.64
고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523	0.260	0.545	-0.35	1.39
	중학교 졸업	0.495	0.199	0.293	-0.17	1.16
	대학교 졸업	0.096	0.140	0.993	-0.37	0.56
	대학원 졸업	0.499	0.236	0.484	-0.29	1.29
	기타	0.360	0.194	0.631	-0.29	1.01
대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426	0.252	0.722	-0.42	1.27
	중학교 졸업	0.399	0.189	0.487	-0.23	1.03
	고등학교 졸업	-0.096	0.140	0.993	-0.56	0.37
	대학원 졸업	0.402	0.227	0.678	-0.36	1.16
	기타	0.264	0.183	0.838	-0.35	0.88
대학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024	0.316	1.000	-1.03	1.08
	중학교 졸업	-0.004	0.268	1.000	-0.90	0.89
	고등학교 졸업	-0.499	0.236	0.484	-1.29	0.29
	대학교 졸업	-0.402	0.227	0.678	-1.16	0.36
	기타	-0.138	0.264	0.998	-1.02	0.74
기타	초등학교 졸업	0.162	0.286	0.997	-0.79	1.12
	중학교 졸업	0.135	0.232	0.997	-0.64	0.91
	고등학교 졸업	-0.360	0.194	0.631	-1.01	0.29
	대학교 졸업	-0.264	0.183	0.838	-0.88	0.35
	대학원 졸업	0.138	0.264	0.998	-0.74	1.02

*p<0.05, **p<0.01, ***p<0.001

D항목의 ANOVA-검정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다.

d5 항목 ‘귀하께서는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d1항목 ‘귀하는 노인복지제도 발전을 위해 노인층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십니까?’, d2 항목인 ‘귀하는 중국의 노인복지 보장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d3 항목 ‘귀하는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 수준의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d4항목 ‘귀하는 재택양로의 방식이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d6 항목 ‘귀하께서는 노인이 사회활동을 통해 노후생활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은 학력층의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족문화적 요인(E항목)

<표4-37> 학력에 따른 E항목의 Anova 검정결과표

요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e1	집단 간	6.998	5	1.400	.897	0.483
	집단 내	506.941	325	1.560		
	전체	513.940	330			
e2	집단 간	10.385	5	2.077	1.352	0.242
	집단 내	499.096	325	1.536		
	전체	509.480	330			
e3	집단 간	17.870	5	3.574	3.732	0.003**
	집단 내	311.254	325	.958		
	전체	329.124	330			
e4	집단 간	25.203	5	5.041	4.944	0.000***
	집단 내	331.322	325	1.019		
	전체	356.526	330			
e5	집단 간	16.512	5	3.302	3.036	0.011*
	집단 내	353.494	325	1.088		
	전체	370.006	330			

*p<0.05, **p<0.01, ***p<0.001

<표4-38> 학력에 따른 E3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167	0.283	0.997	-1.11	0.78
	고등학교 졸업	-0.558	0.254	0.438	-1.41	0.29

	대학교 졸업	-0.357	0.246	0.834	-1.18	0.47
	대학원 졸업	0.280	0.308	0.975	-0.75	1.31
	기타	-0.085	0.279	1.000	-1.02	0.85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167	0.283	0.997	-0.78	1.11
	고등학교 졸업	-0.392	0.195	0.544	-1.04	0.26
	대학교 졸업	-0.191	0.184	0.957	-0.81	0.43
	대학원 졸업	0.447	0.261	0.711	-0.43	1.32
	기타	0.081	0.226	1.000	-0.68	0.84
	초등학교 졸업	0.558	0.254	0.438	-0.29	1.41
고등학 교 졸업	중학교 졸업	0.392	0.195	0.544	-0.26	1.04
	대학교 졸업	0.201	0.137	0.825	-0.26	0.66
	대학원 졸업	0.838	0.230	0.023*	0.07	1.61
	기타	0.473	0.189	0.287	-0.16	1.11
	초등학교 졸업	0.357	0.246	0.834	-0.47	1.18
대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191	0.184	0.957	-0.43	0.81
	고등학교 졸업	-0.201	0.137	0.825	-0.66	0.26
	대학원 졸업	0.637	0.221	0.144	-0.10	1.38
	기타	0.272	0.179	0.804	-0.33	0.87
	초등학교 졸업	-0.280	0.308	0.975	-1.31	0.75
대학원 졸업	중학교 졸업	-0.447	0.261	0.711	-1.32	0.43
	고등학교 졸업	-0.838	0.230	0.023*	-1.61	-0.07
	대학교 졸업	-0.637	0.221	0.144	-1.38	0.10

기타	기타	-0.366	0.257	0.846	-1.23	0.50
	초등학교 졸업	0.085	0.279	1.000	-0.85	1.02
	중학교 졸업	-0.081	0.226	1.000	-0.84	0.68
	고등학교 졸업	-0.473	0.189	0.287	-1.11	0.16
	대학교 졸업	-0.272	0.179	0.804	-0.87	0.33
	대학원 졸업	0.366	0.257	0.846	-0.50	1.23

*p<0.05, **p<0.01, ***p<0.001

<표4-39> 학력에 따른 E4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083	0.291	1.000	-1.06	0.89
	고등학교 졸업	-0.602	0.262	0.385	-1.48	0.28
	대학교 졸업	-0.421	0.254	0.739	-1.27	0.43
	대학원 졸업	0.442	0.318	0.858	-0.62	1.51
	기타	-0.321	0.288	0.941	-1.28	0.64
	초등학교 졸업	0.083	0.291	1.000	-0.89	1.06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0.519	0.201	0.249	-1.19	0.15
	대학교 졸업	-0.337	0.190	0.678	-0.97	0.30
	대학원 졸업	0.525	0.270	0.579	-0.38	1.43
	기타	-0.237	0.233	0.960	-1.02	0.54
	초등학교 졸업	0.602	0.262	0.385	-0.28	1.48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519	0.201	0.249	-0.15	1.19
	대학교 졸업	0.181	0.141	0.894	-0.29	0.65

	대학원 졸업	1.044	0.237	0.002**	0.25	1.84
	기타	0.281	0.195	0.838	-0.37	0.94
대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421	0.254	0.739	-0.43	1.27
	중학교 졸업	0.337	0.190	0.678	-0.30	0.97
	고등학교 졸업	-0.181	0.141	0.894	-0.65	0.29
	대학원 졸업	0.863	0.228	0.015*	0.10	1.63
	기타	0.100	0.184	0.998	-0.52	0.72
	초등학교 졸업	-0.442	0.318	0.858	-1.51	0.62
대학원 졸업	중학교 졸업	-0.525	0.270	0.579	-1.43	0.38
	고등학교 졸업	-1.044	0.237	0.002**	-1.84	-0.25
	대학교 졸업	-0.863	0.228	0.015*	-1.63	-0.10
	기타	-0.763	0.265	0.146	-1.65	0.13
	초등학교 졸업	0.321	0.288	0.941	-0.64	1.28
	중학교 졸업	0.237	0.233	0.960	-0.54	1.02
기타	고등학교 졸업	-0.281	0.195	0.838	-0.94	0.37
	대학교 졸업	-0.100	0.184	0.998	-0.72	0.52
	대학원 졸업	0.763	0.265	0.146	-0.13	1.65

*p<0.05, **p<0.01, ***p<0.001

<표4-40> 학력에 따른 E5 항목의 사후검정표

학력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	상한
초등학 교 졸업	중학교 졸업	-0.028	0.301	1.000	-1.04	0.98
	고등학교 졸업	-0.610	0.271	0.407	-1.52	0.30

	대학교 졸업	-0.591	0.262	0.408	-1.47	0.29
	대학원 졸업	-0.396	0.328	0.918	-1.49	0.70
	기타	-0.248	0.297	0.983	-1.24	0.75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0.028	0.301	1.000	-0.98	1.04
	고등학교 졸업	-0.583	0.207	0.166	-1.28	0.11
	대학교 졸업	-0.564	0.196	0.147	-1.22	0.09
	대학원 졸업	-0.368	0.278	0.882	-1.30	0.56
	기타	-0.220	0.241	0.975	-1.03	0.59
	초등학교 졸업	0.610	0.271	0.407	-0.30	1.52
고등학 교 졸업	중학교 졸업	0.583	0.207	0.166	-0.11	1.28
	대학교 졸업	0.019	0.145	1.000	-0.47	0.51
	대학원 졸업	0.214	0.245	0.979	-0.61	1.03
	기타	0.363	0.202	0.665	-0.31	1.04
	초등학교 졸업	0.591	0.262	0.408	-0.29	1.47
대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564	0.196	0.147	-0.09	1.22
	고등학교 졸업	-0.019	0.145	1.000	-0.51	0.47
	대학원 졸업	0.195	0.236	0.984	-0.59	0.99
	기타	0.344	0.190	0.661	-0.29	0.98
	초등학교 졸업	0.396	0.328	0.918	-0.70	1.49
대학원 졸업	중학교 졸업	0.368	0.278	0.882	-0.56	1.30
	고등학교 졸업	-0.214	0.245	0.979	-1.03	0.61
	대학교 졸업	-0.195	0.236	0.984	-0.99	0.59

	기타	0.148	0.274	0.998	-0.77	1.07
기타	초등학교 졸업	0.248	0.297	0.983	-0.75	1.24
	중학교 졸업	0.220	0.241	0.975	-0.59	1.03
	고등학교 졸업	-0.363	0.202	0.665	-1.04	0.31
	대학교 졸업	-0.344	0.190	0.661	-0.98	0.29
	대학원 졸업	-0.148	0.274	0.998	-1.07	0.77

*p<0.05, **p<0.01, ***p<0.001

E항목의 ANOVA-검정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다.

e3 항목인 ‘귀하는 중국의 경로문화가 노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서는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대학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4항목 ‘귀하는 경로문화의 발전이 노인복지향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대학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1항목 ‘귀하께서는 노인과 자녀가 함께 사는 방식이 이상적인 양로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과 e2항목‘귀하께서는 재택양로의 인해 노인과 자녀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5 항목 ‘귀하는 노인층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은 학력층의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부터 60대이상까지 중국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노인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 통제변수를 교차분석 하였다. 항목별 교차분석 기준은 성별, 연령, 학력 등 3가지 기준으로 교차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을 촉진한다. 또 표본별로 교차 분석한 수치를 보면 노인 복지제도에 대한 성별, 나이, 학력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성별기준에 따른 T-검정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중국 노인복지제도에 대해서 만족도와 인지도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항목에는 거의 성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보다는 중국 노인층이 경제적인 활동에 참가도에 대해 더 높은 수준으로 있었으며, 그리고 다른 항목에는 거의 성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정책적 요인에 대해서 중국의 노인문화교육 정책, 노인의료정책, 노인요양사업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는 거의 성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에는 거의 성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문화적 요인에 남성이 여성보다는 경로문화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다른 항목에는 거의 성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나이기준에 따른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 노인복지제도에 대해서 인지도 20대하고 50대가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양로보험정책에 대해 20대하고 50대, 40대하고 20대가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다른 항목에는 나이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다른 나이층에 보다는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정책적요인에 대해서 다른 항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사회적인 요인 측면에서는 사회활동이 나이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층에 따라 30대하고 50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에는 거의 나이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가족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다른 나이층에 보다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학력기준에 따른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 노인복지제도에 대해서 만족도에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지도가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로보험정책이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 기타하고 대학원 졸업,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는 학력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에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는 학력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정책적 요인에서 사회참여정책에 대해서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권익보장정책에 대해서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는 학력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에서 사회활동에 대해서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는 학력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가족문화적 요인에서 경로문화의 도움이에 대해서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대학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문화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층에 따라 대학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는 학력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2. 연구의 발전방안

우선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노인인체의 노후생활의 기초소득을 강화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층도 다양한 노후서비스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고, 경제적 안정성도 정부와 자녀들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인체의 자유로운 지배에 더욱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발전수요에 따라 노인들의 안정적인 고용, 적당한 가격의 편리한 노후서비스, 노인과 관련된 노후기관 건설 등 일련의 효과적인 발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연금은 노인들의 은퇴 이후 중요한 소득원으로, 노인들의 노동력이 저하된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연금의 적기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노인들의 노후

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적 조치이다.

그 다음에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다. 정책적 지원은 주로 노인복지제도의 발전추세와 설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회보장 기능을 발휘해 노년층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더 많은 연금, 의료 보장 및 기타 사회 복지를 제공하고 노인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강화할 수 있다. 다양한 노인복지제도도 노인의 안정적인 발전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다양한 제도의 탄생은 실제로 노인들이 삶에서 직면하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실용적일 것이다. 기초노후서비스를 만족시키는 노인요양시설의 일부를 유리한 여건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형편이 열악하고 주거를 선택한 노인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사회적 발전은 사회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그룹이 지원해야 하며, 사회적 발전은 효과적인 발전 추세를 가져오기 위해 개인과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가 보다 밀접하게 통합되고 사회화되어 노인들이 사회에 더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봉사활동, 문화오락활동 등을 조직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노인의 정신적 요구를 개선하고 노인의 내적 행복과 안정감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가족문화적 노력도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녀는 집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신적 위안과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동시에 가정은 노인들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가족의 노후 기능을 강화하고 일시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전통적인 노후 모델에 제도, 경제 등의 측면에서 더 많은 편의와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이상적인 노후 모델은 노인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노후 서비스를 받을 때 여전히 일정한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현재 수많은 노후 모델 중 지역사회와 재택을 결합한 노후 모델이 가장 수요에 부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 모델의 투입 강도를 적절하게 강화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노인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회, 가족 및 노인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노인층을 중시해야만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며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다.

부록

중국 노인복지 제도를 위한 설문조사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 재학중인 석사과정 이뢰 학생입니다. 저의 석사과정 학위논문 주제로 중국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노인복지 제도에 위해 양로보험, 양로 시설, 양로서비스 등의 방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복지 제도의 경제적, 정책적, 사회적 등이 노인복지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응답에 소요시간은 약 5분 정도이니,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으신 내용을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신상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이뢰(leerue97@naver.com)

지도교수: 김 주 경(agelead@jejunu.ac.kr)

응답자 선정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나이는?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⑥ 기타

4. 귀하의 결혼 상태는?

- ① 미혼 ② 결혼 ③기타

5. 귀하는 결혼인 경우에 자녀수는?

-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이상 ⑤ 기타

6. 귀하의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직 ② 자영업 ③ 사무직
④ 학생 ⑤ 기타

7. 귀하의 가족 구성원중에서 노인이(65세이상) 몇명 계십니까?

-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이상 ⑥ 기타

A.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항목

첫 번째 표는 중국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a1. 귀하는 중국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a2. 귀하께서는 중국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a3. 귀하는 양로보험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a4. 귀하는 현재 양로보험정책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a5. 귀하는 현재 중국의 노인층 소득수준이 노후생활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B. 경제적 요인에 관한 항목

그 다음표는 노인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관련한 ‘경제적 요인’에 관한 항목입니다.

항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1. 귀하는 현재 노인층의 양로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b2. 노인층의 의료비를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b3. 귀하는 노인층이 경제적인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b4. 귀하는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C. 정책적 요인에 관한 항목

그 다음표는 노인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관련한 ‘정책적 요인’에 관한 항목입니다.

항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c1. 귀하께서는 노인문화교육정책으로 노인의 자질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c2. 귀하께서는 노인의료정책을 통해 노인층의 평균 수명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c3. 귀하께서는 노인서비스 정책을 통해 노인요양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c4. 귀하께서는 노인 사회참여정책이 노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c5. 귀하께서는 노인 권익보장정책을 통해 노후생활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D. 사회적 요인에 관한 항목

그 다음표는 노인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관련한 '사회적 요인'에 관한 항목입니다.

항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d1. 귀하는 노인복지제도 발전을 위해 노인층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d2. 귀하는 중국의 노인복지 보장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d3. 귀하는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 수준의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d4. 귀하는 재택양로의 방식이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d5. 귀하께서는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d6. 귀하께서는 노인이 사회활동을 통해 노후생활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E. 가족문화적 요인에 관한 항목

마지막 표는 노인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관련한 ‘가족문화적 요인’에 관한 항목입니다.

항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e1. 귀하께서는 노인과 자녀가 함께 사는 방식이 이상적인 양로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e2. 귀하께서는 재택양로의 인해 노인과 자녀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e3. 귀하는 중국의 경로문화가 노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e4. 귀하는 경로문화의 발전이 노인복지향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e5. 귀하는 노인층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참고문헌

1. 학위논문

- 고춘란. (2008). 한국 국민연금제도와 중국양로보험제의 발달과정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영. (2013). 국민연금의 정책 신뢰도와 개인연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희. (2013). 노인복지관의 집행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현숙. (2002). 가족주의가치관과 노부모부양의식태도에 관한 연구. 문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봉석. (2020).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희진. (2018). 제주지역 노인복지정책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시영. (2010).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예진. (2018).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희. (2008).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만족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학술지

- Tang Yun. (2019). 중국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중국 청더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서비스학회>. 9(1): 55-76.
- 권다운, 백진영, 최창용. (2022). 사회통합(Social cohesion) 변수 기반 고령사회 노인인구의 심리적 건강과 복지정책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9(1): 107-137.
- 권대희, 오윤자. (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2(1): 115-127.
- 권문일. (2001). 공적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한국사회복지학>. 46: 7-30.
- 김경숙. (2022). 광주·전남지역에서의 노인복지조례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8): 177-183.
- 김근홍. (2005). 독일 노인복지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변화 = 아젠다 2010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0(29): 45-63.
- 김대환, 류건식. (2015). 개인연금을 활용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연금연구>. 5(1): p1-p19.

김도희, 조정현, 장임숙. (2018). 지역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 울산광역시 남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2): 31-57.

김수정. (2019). 인권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노인복지제도 변화. <사회복지법제 연구>. 10(3): 3-21.

김진, 이서영, 조문기. (2022). 초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연구. <일본문화연구>. 83: 5-29.

노석주, 이상목. (2008). 고령화사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개선편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1): 365-396.

민원홍. (2020). 효행 장려 및 지원정책과 노인복지 관련 정책 간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효학연구>. 32: 1-21.

박명숙, 남영신. (2010).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유라시아연구> 7(1): 301-318.

박영란·박경순·정은화. (2014).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부정성이 농촌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2): 151 -177.

서복현, 황윤희. (2020). 노인의 복지인식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583-597.

신현목. (2011). 가족복지와 노인복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역할 효능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지원학회지> 6(1): 139-161.

양승미. (2022). 노인복지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3(3): 85-115.

유영주.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이선희 정순돌. (2022). 예비노인의 삶의 질 다중궤적 연구. <한국노년학>. 42(1): 73-96.

이재광, 陈櫻花. (2009) 韩国国民年金制度与中国养老保险制度比较研究 - 以改革过程为中心. <중국연구>. 47(0): 623-647.

이재란, 조계표. (2021)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50(0): 1-28.

이현정. (2018). 개혁기 중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고령 농민의 구조적 배제. <아시아리뷰>. 8(1): 75-104.

이희성, 권순호. (2020) ,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50: 1-29.

정동하. (2009).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서, 부모-조부모 친밀감 및 노부모 부양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3): 29-49.

정현명. (2013). 한국 노인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법

학논총>. 30(0): 223-246.

조기원. (2007). 국민연금 개혁추진 현황과 쟁점. <노동리뷰>. 2007(1): 102-107.

조철호. (2010). 지역사회 노인주거시설에 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9(2): 225-233.

차지훈. (2014). 독일리스터연금 사례로 본 바람직한 개인연금 개혁방안 우리금융경제연구소. 주간 금융경제동향 4(42): 11-15.

최은정. (1999).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원과 노인의 정신건강 및 신체적 건강. <사회와 문화>. 11: 185-203.

함재봉, 손경희. (2020).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빈곤과 노인복지정책. <한국지방자치연구>. 22(3): 135-151.

3. 기타문헌

국민연금공단. (2011). <http://www.nsp.or.kr>.

국민연금연구센터. (1997).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08). <https://institute.nps.or.kr/>.

김성숙(2013). 국민연금 제도의 소득 재분배 이유와 목적: 공적연금에서 소득 재분배의 형태.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김연명. (2009). 국민연금이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가? : 국민연금의 세대간 재분배 구조에 대한 재해석.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삼성경제연구소. (2002).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이용하, 임병인. (2013). 국민연금 보완제도로써 개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이혜원. (2000). 노인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조덕호, 마승렬. (2007). 노후보장정책과 역저당연금제도.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조석주 외. (2007).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서울: 박영사.

한겨레. (2021). 고령인구 비중 높아지는데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Cantor, M. H. (1979). Neighbors and friends: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1: 435-463.

Moberg, D.O. (1984). *The Church as a Social Institu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中国新闻网. <https://www.chinanews.com>

中國新聞網. (2007). 世界衛生組織發表 2007年衛生報告. 中國人均壽命男71女74. 2007年 6月 11日.

周卉. (2015). 中国农村养老保险制度的发展与反思. 吉林大学 博士论文.

李建华, 张效锋. (2009). 《社会保障伦理：一个亟待研究的领域》. 《哲学研究》.2009 年第 4 期.

杜鵬, 王武林. (2007). 中國人口老齡化与老年福利的展望. 「中國人民大學報」(5). 中國人民大學 老年學研究所.

沈诗杰. (2012). 我国城市养老保险现状及比较研究. 吉林大学 博士论文.

知乎. (2022). <https://zhuanlan.zhihu.com>.

知乎. (2023). <https://zhuanlan.zhihu.com>.

阎青春. (2006). 中國老年人社會福利政策後析. 「社會福利」

陈谊娜. (2012). 老龄化背景下中国养老保险研究. 天津大学 博士论文.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China

LI LEI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hina has a large elderly population in the world, and as the population ages and urbanization progresses, the outlook for the elderly care service market is getting wider. By the end of 2019, China's elderly population will be 249 million, accounting for 16.66%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elderly population will continue to grow over time,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data. This also means that there will be more and more demand in the elderly care service market.

As the aging process continues, Chinese society will face problems such as weakening family function, lack of payment channels for elderly care services, soaring demand for medical care, a lack of supply of rural elderly care services, and an imbalance in the urban elderly care service structure. For example, China's demographic structure will become increasingly aging and family functions will weaken. As the population ages and the urbanization rate increases, China's household structure is becoming simpler,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living with children decreases, and the demand for social retirement of the elderly in China is gradually increasing.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Chinese elderly welfare system. Based on economic, policy, social, and family and cultural factors affecting the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through previous studies, the factors affecting the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are

It was empirically analyzed through t-test and Anova analysis.

A T-test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gender standards. Overall, men showed higher levels than women. Men showed higher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the Chinese elderly welfare system than women. Other items showed little difference in gender. As for economic factors, men and the elderly in China had a higher level of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an women, and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gender in other items. Regarding policy factors, men showed higher policies than women, such as China's elderly culture education policy, elderly medical policy, and elderly care commerce. And in other items, there was almos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In terms of society, men were also found to be higher than women, and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gender in other items. Finally, it was found that men need path culture rather than women as a family cultural factor, and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gender in other items.

ANOVA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age standards. There is a difference in awareness of the Chinese elderly welfare system between those in their 20s and 50s. Regarding the nursing care insurance polic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ose in their 20s, 50s, 40s, and 30s. Other item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conomic factor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As for policy factor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other items. In terms of social factors, social activities were found to have differences in perception according to age, and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ose in their 30s and 50s depending on the age group. Other items showed little difference in age.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family and cultural factor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ANOVA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academic standards. Regarding the Chinese elderly welfare system,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according to academic background, a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high school graduation and graduate school graduation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backgroun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according to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high school graduation and graduate school graduation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background. The elderly insurance policy was found to have a difference in perception according to ac

academic background, a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high school graduation, graduate school graduation, university graduation, and graduate school graduation.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background in other items. In terms of economic factors,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medical expenses according to academic background, a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high school graduation and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background.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background in other items. In terms of policy factors,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social participation policy according to academic background, a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high school graduation and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class. Alternatively,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guarantee policy according to academic background, a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high school graduation and middle school graduation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background.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background in other items. In terms of social factors,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social activities according to academic background, a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elementary school and college graduation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background in other items. In terms of family cultural factors,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help of senior culture according to academic background, a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graduate school and high school graduation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class.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path culture development according to academic background, a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graduate school, high school, college, and graduate school graduation,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background.

Topic words: China's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aging, and old age policy, t-test, Anova.